

## 내 고향 인천... 변하지 않는 추억을 붙들다

### 추석, 그 시절 그리운 그들

‘해 지는 서산마루 저녁연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곳.’ 어느 시인의 노랫말처럼 고향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정답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또 수십만의 귀성객이 고향을 찾아 도시를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곳 도시도 그 누구에게 아련한 추억이 남아 있는 고향이다. 개항 이후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에서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는 인천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지난 50년 여의도 면적의 78배에 달하는 면적이 새로 생겨났고, 지금도 ‘도시정비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124곳 673만4천㎡에 달한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내 고향 인천을 찾아오거나 남아있을 이들은 어떤 얘기를 나눌지 그들만의 ‘노스텔지어’를 미리 들어봤다. <편집자주>



인천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청량산, 송도갯벌, 수도권산, 수인선 협궤역차, 반지기나루터(왼쪽부터).

### 개발사업 열기 속 사라진 옛터 “명절 되면 생각나 찾아가지만 설렘과 아쉬움 교차할 뿐이죠”

“시제 때나 가지 명절에도 잘 모이지 않죠. 고향이라고 해봤자 지금은 아파트 단지뿐인걸요.”  
영일정씨(迎日鄭氏) 승자공과 후손인 정연용(55)씨는 얼마 전 서울로 이사간 형님 댁에서 추석 차례를 지내다고 했다. 1년에 한두 번 시제 때나 인천시연수구 청량산 자락에 위치한 선영(先塋)을 찾는다. 어릴 적 살던 집터는 사라진 지 오래다. 그곳엔 하루 24만명의 오페수를 처리하는 승기하수처리장이 들어서 있다.

“예전에 이곳에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가부라지(모시조개)가 많이 잡혔지요. 인근에 학교도 없어 청량산을 넘어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 반농반어를 하는 동네에서 3년마다 도당굿을 지내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국에서 방물장수들이 다 몰려와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정씨의 기억에 남아있는 옛 고향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의 기억에는 길가에 핀 코스모스도 향수를 자아냈다.  
인천의 대표적 달동네 동구 송현동 수도권산이 고향인 노중군(49)씨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동네가 재개발돼 계양구로 이사해 살지만 어린 시절 추억이 있는 이곳이 늘 그립다.  
“동네가 가팔라 눈만 오면 비닐포대

로 미끄럼 타고 놀았는데 그때마다 어른들한테 혼도 많이 났지요. 길이 미끄럽다고 연탄재를 뿌리다 한 번은 불을 낼 뻔한 적도 있었어요. 명절 어머니 따라 중앙시장에 갔다 난생 처음 얻어먹은 순대국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노 씨는 지금도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아직 남아 있는 송현동 골목길과 옛 추억을 옮겨다 놓은 달동네박물관을 찾곤 한다.  
남동구 논현동이 고향인 방효성(58)씨 역시 3대째 이곳에 살고 있지만 옛 추억을 더듬을 만한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소래포구역 근처 박물관에 전시된 협궤역차 철길에서 놓던 옛 추억을 떠올렸다. 기름 묻은 철도 침목을 깎아내 붙장

난하던 추억과 인근 배나무 밭에서 서리하던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설가 이원규(68)씨는 얼마 전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친구들에게 어릴 적 함께 맛조개를 잡던 것밖에 들어선 신도시를 소개했다. 그 중 한 친구가 예전 살던 자신의 집터가 어딘지 못 찾겠다며 슬퍼하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고 했다. 작가는 서구 연희동에서 나고 자라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30년 넘게 대대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고향은 아무리 변해도 고향인거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 해서 싫다고 할 수 없지”라며, 딸조리를 접는 그의 모습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지연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 매주 월요 간부회의 화~금 티타임까지... 시장 중심 현안체크

인천시가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다양한 회의를 진행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당초 한 주씩 걸려서 진행하던 간부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간부회의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각 실·국·본부장과 관련 기관장 등 2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티타임’을 가진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경제청장과 함께 시장 주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한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행정·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관리국장, 현안이 있는 실·국·본부장이 모여 회의를 연다. 이외에 확대간부회의는 짝수 달에 한 번, 직원 월례회회는 홀수 달에 한 번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인천 가치 재창조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 ▶8대 전략사업 육성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인천가치 재창조를 위해 인천인물 찾기, 견제순서 바로 세우기, 섬 프로젝트 등을 실시한다.  
인천 중심의 교통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인천발 KTX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일반도로화,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해 물류, 항공, 첨단자동차, 관광, 바이오, 로봇, 녹색기후금융, 뷰티산업 등의 8대 전략산업을 키운다.  
시 관계자는 “끊임없는 인천 발전을 위해 현안 챙기기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집행부부터 소통의 시간을 늘려 혁신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 시,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

### 전국 첫 추진... 산업재해 예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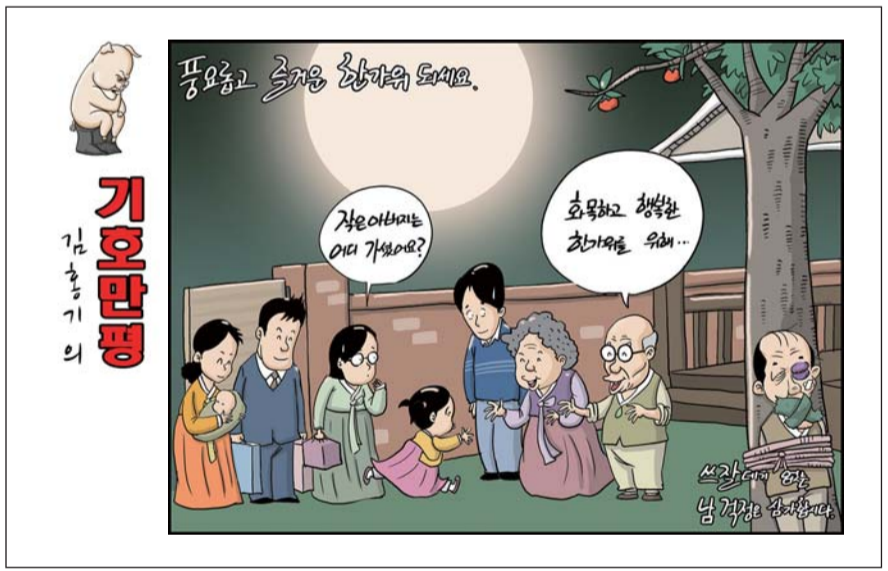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화학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인하대학교, 인천상공회의소, SK인천석유화학(주)과 ‘민·관·학 환경안전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인천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화학물질 관리 소홀로 인한 화학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민·관·학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환경 분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안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화학물질 예방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내 기업에 환경안전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 인프라

제공,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환경안전 선진 기술 및 역량 전파 ▶화학사고 예방 중앙 부처 정책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재난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때문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교육은 무상으로 12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숙련된 전문기술자들이 업체를 방문해 화학물질 취급 실태와 시설·공정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과 집중 기술지도로 위험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재난사고 발생 시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전개해 ‘환경안전 1등 국제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기관별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신기시장 추석을 앞둔 24일 인천 신기시장이 제수용품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한가위만갈라

- 장르 상찬 연휴 극장가 둘러보기 ▶ 14
- 먹고 듣고 파일럿 TV 프로 다채 ▶ 15
- 어디 갈까 인천지역 가볼만한 곳 ▶ 16
- 여기 갈까 경기지역 여행지 체크 ▶ 17
- 빨리 갈까 고향가는 길 교통정보 ▶ 18

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오늘 24면 발행 26~29일자 신문 쉽니다

## The President's Cup

# 2015 프레지던트스컵

## 10.6 - 11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 |

GLOBAL PARTNERS OFFICIAL HOST

2015presidentcup.com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식구 늘었어요

# 사막여우 첫 자연분만 성공

멸종위기종 고품화 탯 개체 유지 어려움 봉착  
최적의 사육환경 지원성과 암수 4마리 세상에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멸종위기 2급인 사막여우 식구가 늘었다.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사막여우가 지난 8월 말 새끼 4마리(수컷 2, 암컷 2)를 출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 온 사막여우는 이번엔 번식에 성공해 자연분만으로 출산했으며, 현재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동안 새로 태어나는 새끼가 없는데다 기존에 있는 사막여우(6마리)가 모두 고품화 상태여서 개체수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사막여우는 생쥐뿔페리의 「어린이왕자」와 어린이 만화 '보로로'의 친구 '에디'로 나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이다. 사막여우의 자연 임신 및 출산이 있기까지 담당 사육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있었다.

보통 사막여우는 자연상태에서 임신기간이 50~52일이며, 한번에 2~5마리의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격이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약해 인공적으로 사육되는 개체의 경우 임신이 어렵고,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새끼를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식에 어려움이 있다. 인천대공원 사막여우의 경우 멸종위기종 사육 기준에 따라 정기건강검진과 건강상태(혈액검사 등)를 수시로 체크했다.

이런 과정에서 임신 초기임을 확인하고, 고단백 먹이 급여 및

분만실 마련 등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자연상태의 출산과 포육이 가능했다.

현재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는 지난 6월과 7월 낳아온 암컷 1마리와 라쿤 2마리(수컷 1, 암컷 1)가 태어났으며, 서울동물원에서 임대해 월라루(소형 캣거루) 2마리가 6월부터 전시되고 있다.

2000년 조성된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에는 일본원숭이, 파모셋, 미어캣, 타조, 코요테 등 45종 280여 마리의 동물들이 생활하고 있다.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대체휴일 포함)에는 쉰다.

배준환 시 동부공원사업소장은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 출산은 인천대공원 어린이동물원이 개원한 이래 처음 있는 경사"



지난 8월에 출산한 인천대공원 동물원의 사막여우 새끼 4마리가 공개됐다.

라며 "동물의 출산은 동물원의 생태 환경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앞으로 동물원 동물

복지 향상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 인천남부교육청 '만족도 95%'

행정서비스 분야 긍정평가

인천남부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교육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수요자들이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의 감동 행정 실현을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 120명을 대상으로 이용 편의성, 업무 처리의 신속·정확성,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행정서비스현장 인지도, 편의시설 만족도, 서비스 전방 종합의견 등 6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해 전화 및 직접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95%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업무처리 신속·정확성,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도 등에서 95%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행정서비스현장 인지 및 고객 편의 시설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남부교육청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게시판을 활용한 행정서비스현장 홍보,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 확보 및 인근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부착, 담당공무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명패 부착 등의 수요자 요구 중심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윤희 기자

# 서부교육청 '인성교육 성공적'

교육부 3년연속 우수기관에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이 전국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운영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24일 인천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인성교육 네트워크 우수 모델은 지난 2013년에 처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교육 지역네트워크 사업 공모를 거쳐 선정된 33개 시·도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서면평가와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거쳐 이번에는 최종 6개 교육지원청이 선정됐다.

여기서 서부교육청은 이사업 시작 때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유일한 교육지원청으로, 인성지역네트워크 운영의 우수한 롤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

특히 서부교육청은 C(curriculum)·C(communication)·C(communitiy)가 서로 연계한 다층적 협력망을 통한 지역네트워크는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해 학교급·지역별 인성검사지수 빅데이터 추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최윤희 기자 cyt@kihoilbo.co.kr

# 인천시, 아이돌보미 1500명으로 늘린다

경단녀 취업지원 강화·보육지원 인력 780명 활동중

인천시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시는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사업을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가 직접 희망가정을 방문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 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인천에는 9개 서비스 기관에 93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등록돼 있다. 이 중 780여 명이 활동 중이며, 지난 해 1만 1천여 가정에 17만 건

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이돌보미 확대는 경력단절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시는 아이돌보미를 1천500여 명까지 늘려 그 만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정부 지원유형을 결정한 뒤 아이돌보미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mogef.go.kr) 또는 아이돌봄 대표

전화(1577-251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자 시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이 집중시간(오후4시~8시) 때 이용을 원하고 있고 이 시간 때의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해 대가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이돌보미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 인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10월 한 달간 튜닝 등 적발

인천시가 불법자동차 소탕 작전에 나선다.

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한 달 간으로,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정기검사미필·무단방치·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은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시는 적발되는 위반 차량 소유자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집중 단속을 벌여 10개 군·구에서 모두 1천605대의 무단방치 자동차를 처리했으며, 불법등화장치·변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HID전조등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657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 인천에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추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하시설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도시시설물 관리를 위해 구축해 온 단순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는 복합적인 도시 변화로 시스템 구축도 어렵고, 정보 활용에도 애를 먹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첨단 도시 기반 시설물 관리체계는 땅속 안

전과 관련된 정보 통합과 공유 기능이 강화되고, 안전관리 부서와의 협업체계도 가능하다.

특히 도시정보화에서 소외됐던 강화군, 옹진군 등의 섬지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 청라, 영종지구에서도 활용이 대폭

쉬워진다.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방대한 도시정보를 플랫폼 기반에서 공유와 협업을 극대화시키는 이번 사업이 정부 3.0 실현이고 행정혁신"이라며 "안전에는 원도심과 신도시, 섬지역의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없는 만큼 안전한 인천과 시민 편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ijh@kihoilbo.co.kr

# 강화, 한강물 임시관로 내달 착공

농업용수 확보 대안으로

올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화군이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한강물을 끌어오는 '임시관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10월 초 공사착공을 목표로 한강물 '임시관로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하고, 이달말까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화지역은 최근 2년간 이어진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평년의 35%도 안되는 강수량으로 인해 현재 31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10%에 미미한 상황이다.

공여지역으로 군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북부지역 일부로 끌어오는 관로 0.5km를 설치하고, 가압 펌프장 1곳을 신설해 현재 대산 저수지에 1일 3천t의 물을 담수하고 있다. 하지만 1일 3천만으로는 강화 전 지역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임시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오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o2@kihoilbo.co.kr

지난 해 554mm, 올해 407mm 등

경기도의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 경기도민과 함께한 1년,

##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를 위해 뛰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

**/ 사람중심의 민생**

- 지방의회 최초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 민생중심의 정책·입법활동(197건 조례 제·개정)
-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의정활동(230회 현장방문)

**/ 견제와 협력의 균형정치**

- 경기도 연합정치 추진
- 전국최초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 혁신과 소통, 지방자치 강화**

- 의회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위 구성
- 의회 혁신 TF팀 운영
- 자치분권 강화 지방정부연석회의

www.ggc.go.kr

# 무협, 도내 車 부품 중기 해외 진출 맞춤 지원

김정관 부회장 광고 테크노밸리서 10개 기업 애로 청취  
환율변동 피해·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 약속

한국무역협회가 경기도의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도내 자동차 수출산업 성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4일 수원 광고 테크노밸리를 방

문한 자리에서 “경기도내 840개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무역협회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고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도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간담회’에는 동양퍼스트, 유라코퍼레이션, 대신기계공업 등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10개 사 대표가 참석해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김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 부회장은 “제조업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환율,

엔저 등으로 인한 완성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수출 환변동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에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 유명 자동차기업과 교류하기가 어렵고 해외시장 정보 또한 기업 자체적으로 얻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등을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무역협회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앞으로도 무역협회는 도내 자동차 부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과 크고 작은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hihoilbo.co.kr

## 경기경찰청 오늘부터 교통점검 경부선 등 3개 노선 갓길 허용

경기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특별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교통경찰, 지역경찰, 모범운전자 등 연인원 1천898명과 순찰차 등 장비 453대를 혼잡 교차로와 주요 도로 등에 투입해 혼잡한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또 상습 정체구간인 경부선 서울방향 수원나들목(0.5km), 영동선 신갈나들목~용인원터(2km), 서해안선 서평택나들목(0.5km) 등 3개 노선에서는 승용차 갓길 운행이 임시로 허용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이 가장 심한 고속도로 4개 노선 89km(경부·서해·영동·중부)에 신속대응팀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 나 긴급환자 후송 등을 지원한다.  
심언규 기자 sims@khihoilbo.co.kr



어린이들의 깜찍한 명절 인사 수원 세류시립어린이집 원생들이 24일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hihoilbo.co.kr

# 도, 공무원 기강 확립 고삐 죄다

음주 징계 등 3대 시책 발표  
적발 땀 승진제한 기간 적용

최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 운전, 동료 및 경찰관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키자 도가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섰다.  
범죄발생 시 승진 제한 기간 연장, 음주문화 준칙 마련,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등 공직문화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도를 이를 위해 ▶음주·성범죄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자 책임 강화 ▶따뜻하고 기강 있는 공직문화 정립 및 사전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3대 시책과 구체적 실천 방안인 9대 실천과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도 공직자가 음주운

전 1회 적발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34조에 규정된 승진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2회 적발 시 중징계 및 승진제한 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성범죄의 경우는 단 1회라도 정직 이상 중징계 시 승진제한 기간이 2배로 강화된다. 직장 내 폭행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예방책으로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자원프로그램’ 제

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문화 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준칙에는 ▶국·과 단위의 대규모 회식 자제 ▶술을 마시지 않은 직원이 동료들을 집까지 배려해주는 ‘음주 지킴이’ 지정 ▶택시 이용 ▶오후 9시 전 귀가 등이 담겨 있다.  
또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 협약을 체결,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활동을 통한 대안적 회식문화를 장려하고 단체 관람 실적을 부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실·국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사이버교육 과정을 개설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조사담당관실 내에 ‘건설 부조리 신고센터’를 열고 ‘건설 부조리 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신고전화 (☎080-9000-188, ☎031-242-2336)를 통해 건설 부조리 민원, 업체 알선·청탁, 하도급 비리 등의 건설민원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전본희 도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공직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서를 반영해 공무원의 청렴과 도덕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처벌을 넘어 사전 비위 예방까지 강화한 이번 특별대책을 강력히 시행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hihoilbo.co.kr

# 마을 특색 담은 콘텐츠 예술 상품으로 재탄생

경기문화재단-평택시  
브랜드제작소 내일 개소

경기문화재단과 평택시가 2013년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 안정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재생 사업 ‘마을 예술상점-마을 브랜드 제작소’를 26일 평택 아트캡 1층에서 문을 연다.  
‘마을 브랜드 제작소’는 예술가 그룹인 ‘이웃상회’와 평택 지역 장인의 협업(co-working)을 통해 지역의 콘텐츠를 반영된 예술 상품을 기획하고 자체 생산·판매하는 지역 자산 활용형 상점이다.  
미군기지 K6 앞에 위치한 안정리는 지난 60여년간 미군 기지에 의존해 온 마을로 미군기지 이전과 재개발 지정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어왔다.  
이에 재단과 평택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예술가들과 함께 이번 사업을 기획했고,

마을 고유의 자원이 생산과 소비로 순환할 수 있는 마을 브랜드 ‘안정맞춤’과 ‘C-Ration’(한 팩의 문화에너지)을 제작, 출시했다.  
이웃상회의 이미지 작가가 기획한 ‘C-Ration’은 미군 개인 전투식량(Combat Individual Ration)의 약자로, 전투 시 군인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C-Ration에 착안해 안정리 지역의 문화유산과 정서를 담아 한 팩의 문화 에너지를 미군들에게 파는 상품이다.  
‘안정맞춤’은 안정리에 꼭 들어맞는 기념품으로 가방, 파우치, 쿠션 등의 핸드메이드 제품과 티셔츠 제품을 지역 장인들과 함께 제작한 수제품이다. 평생을 미군을 대상으로 양장점과 세탁소를 운영하며 수제업을 했던 김기분, 차동길, 신미숙씨와 미군 티셔츠를 제작 판매 해 온 강규호(걸 실크스크린)씨 등이 지역의 장인으로 참여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 미래산업 이끌 ‘슈퍼맨’ 10개 팀 경기창조오디션 결선 진출 확정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는 다음 달 22일에 열리는 ‘슈퍼맨 창조오디션’ 결선대회에 진출할 10팀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슈퍼맨 창조오디션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와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가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1차 예선 서면, 2차 예선 면접, 본선 발표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0팀을 결선 진출팀으로 선발했다. 선정에는 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외부전문가 5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독창성, 현실성, 사

업성, 파급효과 등을 평가했다.  
결선 진출 10개 팀은 사업화 부문의 ▶비타민상상력(SW) ▶넥시스(정보통신) ▶엔앤링크(전기·제어) ▶라프(전자제품) ▶경감(권상림) 등 5팀이고, 아이디어 부문은 ▶마이키퍼(SW) ▶미라클(환경) ▶HnP(전기·제어) ▶치솔(SW) ▶오영준(정보통신) 등 5개 팀이다.  
결선 진출이 확정된 10개 팀은 향후 약 한 달에 걸친 준비 기간 기업진단 전문가를 통해 아이디어 및 기술과제에 대한 점검과 사업계획의 진단이 이뤄질 예정으로 결선대회는 다음 달 22일 판교에 있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제27회 군포시민의 날**

책·철쭉·행복·청렴도시 군포의 제27회 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 2015.10.2(금) 기념음악회  
오후 7시\_시민체육광장
- 2015.10.3(토) 기념식 및 한마음체육대회  
기념식 9시 50분 ~ 10시 50분 / 체육대회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_시민체육광장

gunpo 군포시 WithBook 함께 읽는 세상 함께 읽는 세상 GUNPO

의정부시, 문화관광·체육 역점사업 들어보니

# 40억 들여 축제·행사 볼거리 강화

상설공연 개발 11월에 첫선  
비보이 대회 유치 환경 조성



의정부시 회룡문화제 거리 퍼레이드 장면.

의정부시는 24일 민선 6기 2년째를 맞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활기차고 정감 있는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역점 사업들을 공개했다.

**# 문화 관광상품 개발·관광 상설공연 추진**

의정부시는 의정부 및 경기북부 지역의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광 상설 공연'(년별 뮤지컬 퍼포먼스)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첫선을 보인 시범공연 '꽃의 동화'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2월에는 의정부시 및 경기북부지역 관광문화콘텐츠 K-Culture Show '별의 전설-견우직녀'를 기획,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세계적 비보이 육성·관광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B-Boy대회 한국대표 선발전과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끼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연습장, 상설공연장 등

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곳을 찾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산업에 대한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의정부시 고유의 관광콘텐츠와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 행복과 희망을 주는 생활문화 예술**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 승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제26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과 병행해 '회룡문화제'의 볼거리로 집중 지원·활성화하고 먹거리인 부대찌개 축제를 8·3·5 잘살기 프로젝트인 외부 관광객 유치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3만5천 명 화합의 한마당,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의정부시는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 조성 및 1천270만 도민의 우정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희망을 여는 의정부, 미래를 여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제26회 경기도 생활

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다음 달 9~12일 4일간 개최되는 대축전은 도내 31개 시·군의 대표 생활체육인 3만5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생활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안병용 시장은 "문화관광 진흥 및 스포츠 발전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최대한 투입해 전국 최고의 건강·여가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민부근 기자 bgmin@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지방의회, 추석 온정 줄이어



시흥, 이틀간 복지시설 16곳 위문

시흥시의회의는 추석을 앞두고 23일, 24일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천사의 집과 에덴공동체, 빛고운 공동생활가정 등 16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했다. 위문에 나선 의원들은 입소자 및 시설 관계자들과 둘러앉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lee@khihoilbo.co.kr



화성, 미혼모 등 시설 두루 찾아

화성시의의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을 잇달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박중선 의장은 지난 23일, (사)가능장애인협회(능동)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고 행정자치위원회도 22일 향남에 위치한 미혼모 보호시설인 로템의 집을 찾았다. 또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22일 노인요양시설 에덴의 집(향남읍)을, 도시건설위원회는 23일 해뜨는 마을(봉담읍)을 각각 방문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화성=조홍복 기자 hbj@kh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hihoilbo.co.kr

## 수원시, 수요자 중심 맞춤형복지 서비스 추진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  
응급돌보미 2000가구 실시

수원시는 노인 및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원지역은 전체 인구의 8.32%(9만8천68명)를 차지하는 고령인구와 4.8%(5만5천981명)의 외국인 거주하고 있는 등 다양한 복지수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복지예산으로 시 전체 예산의 33.96% 수준인 5천913억여 원을 편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 및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5년께 수원지역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는 활동적 노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령자를 배려하고 이동성이 편리한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다. 내년 1월까지 'WHO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와 교통, 사회 참여, 일자리, 복지, 보건 등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집에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하는 '응급돌보미사업'을 1천800가구

에서 2천가구로 확대·실시한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여성 트립플 안심안전 사업'도 펼친다. 여성가구 세대의 창문 등에 감지센서의 설치를 통해 무단 주거침입을 방지하는 '우먼하우스 케어 방범서비스'와 늦은 시각 귀가길을 동행하는 '여성 안심귀가 로드매니저' 등이 실시된다.

이와 함께 전체 인구의 3.5%(4만474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자원팀을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재활프로그램 추진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자립을 돕는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 과천우정병원 용도 제한에 19년째 발목 정부 '건축활성화대책' 적극 활용할 때

신계용 시장, 市 설명회서 제기  
정부청사 이전 후 지역 약재로  
시 재개 용역 등 지원 약속



용도를 제한하다보니 사업성 저하로 지금까지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흉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또 "정부과천청사 주요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 지역 상권 침체와 전국 자치단체 중 최고의 실업률은 과천시 지역경제 활

성화에 더 큰 약재로 작용하고 있어 우정병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더욱 절박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7월9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방직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방안으로 용적률 완화 등 인센

티브 마련과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들도 7만 과천 시민의 바람을 담아 이해득실에서 벗어난 진정한 프렌드십을 당부했다.

과천시는 앞으로 우정병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특혜사비 불식과 사업성 분석, 미래지향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재개 지원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과천=최승필 기자 spc@khihoilbo.co.kr

무기계약직 '사용부서' 용어 인권침해적  
수원인권보호관 '소속부서' 로 개선 권고

수원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가 시행 중인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수원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과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는 기간제와 단시간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사용' 또는 '사용부서'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사용'이라는 단어가 통상적으로 물건 등에 대해 쓰인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은 물건으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인사·노무·무기계약근로자 지부장과 개정 사항을 협의해 '무기계약근로자'라는 용어를 '공무직'으로, '사용부서'를 '소속부서'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인권침해적 용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www.guc.or.kr

### 김포 학운2 산업단지 즉시착공가능!

선착순  
수의계약

## 김포 골드밸리 학운2 산업단지 지원·주차장 용지 분양

분양대상 용지 및 분양가격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일원

구 분	가 격	면 적
지원용지	428~597만원 (3.3㎡당)	612~1,398㎡
주차장용지	202만원 (3.3㎡당)	2,463~2,691㎡

분양  
문의 031) 998.9488



# LH, 첫 민간 공동 블록형 단독주택지 조성 추진

### 영동~동탄 사이 용인서천지구에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착수 취득세 없애고 토지매입 금융이자 부담 낮춰 분양가 거품 ↓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4일 공사 최초로 LH·민간(엔디종합건설)의 공동개발 방식으로 용인서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도심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자로 2개 블록이 각각 60%이상의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지조성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용인서천지구는 총면적 114만2천451㎡로 수원 영통지구와 화성 동탄1지구 사이에 위치한 택지개발지구다. 사업대상 토지인 2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필지로 분할해 총 39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호당 토지면적은 평균 314㎡(분양면적 기준)이며, 주택평형은 109㎡, 115㎡, 125㎡ 중 1개 평형을 선택할 수 있고, 호당 주택 분양

가격은 115㎡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평균 약 5억6천380만2천 원이 된다. 주택평형은 추후 계약시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주문형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이른바 민간참여형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토지가

전에 따른 취득세를 없애고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돼 궁극적으로는 총사업비를 경감하고 분양가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블록별로 60%이상 분양계약이 체결 될 경우 사업이 진행되며, 지난 6월 10일 1차로 757번지의 분양계약률이 60%(12호)를 넘어서 8월 초 대지조성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10일자로 770번지의 분양계약률 60%(12호)를 확보함으로써 2개 블록 모두 대지조성사업 착공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757번지의 대지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중순께 1차 분양분을 중심으로 선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며, 12월중 첫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770번지는 9월 대지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2016년 5월까지 첫 입주 예정이다. 용인서천 PM팀 문운태 PM(전문직 1급)은 "그동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매각이 되지 않고 개발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었으나, 이번 용인서천 단독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심형 전원주택단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 야근에 강제 회식... 휴가까지 눈치 봐야? 관행화된 근로문화... 이제는 바꿔봅시다

### 노동부 안산지청 프로모션 '일가(家)양육 캠페인' 눈길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일가(家)양육 캠페인 참여기업 임직원에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일가양육 캠페인'은 일상화된 야근과 불필요한 회식, 눈치 보는 휴가 등 관행화된 근로문화를 개선해 근로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의료분야에 집중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참여기업 근로자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에 참여하는 병원은 대의의료재단 한도병원,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 안산튼튼병원, 온누리병원 등 5개 지역 병원을, 내년 6월30일까지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한다. 이훈원 안산지청장은 "앞으로 도·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외식업체와 문화기관을 상대로 프로모션 참여기관을 지속 발굴, 더 많은 가족친화기업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윤영준 기자 yjy@khihoilbo.co.kr

## 근로자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개편

### 고용노동부 부처지청 추진

고용노동부 부처고용노동지청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를 개편·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처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지원제도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전일제→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

해 전환장려금 지원방식을 정액 지원(사업주 50% 부담)에서 정액 지원(1년간 최대 240만 원)으로 변경하며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사업주(중견·중소기업)에게는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근로자 임금상승분의 50% 지원에서 70%(청년층은 80%) 지원으로 지원율을 높이고, 간접노무비도 월 1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도농기원, 전통주 발효법으로 만든 '쌀 맥주' 기술이전 협약

우리 전통주 발효법으로 만든 '쌀 맥주'가 내년 하반기에 처음 선보인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24일 세븐브로이맥주(주)에 쌀 맥주 제조법을 이전하는 내용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국내 최초로 맥주제조 일반면허를 취득하고, 고급 에일 맥주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도 농기원이 개발한 쌀맥주 제조법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험연구 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이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맥주

의 발효방법(단발효법)이 아닌 전통주 발효방법(복발효법)을 접목해 만들었다는 점이다. 주원료인 쌀과 보리에는 부원료인 맥아와 홉을 첨가해 맥주의 풍미를 그대로 갖고 있다. 자색고구마, 복분자 등 국산 농산물을 부원료를 첨가해 다양한 맥주도 만들 수 있다. 세븐브로이맥주는 내년 하반기 시제품을 생산한 뒤 기호도 조사 등을 거쳐 맥주 특색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혁 기자 kjh@khihoilbo.co.kr

## 양주테크노시티, 경기북부 벤처창업 메카로

### 경기도 추진 허브 조성 사업 예산 137억 추경심의회 확정 Y.T.C 빌딩 內 8472㎡ 규모 60개社 내외 선정·지원키로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Y.T.C(양주테크노시티)가 경기북부 벤처창업 지원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양주 Y.T.C 빌딩은 지난 23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 예산 137억8천600만 원이 제2회 추경예산 본 심의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의정부 C.R.C 빌딩과 더불어 경기북부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중심 시설로 가능하게 됐다.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은 도내 남북부 간 심각한 벤처창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경제발전을 공언한 남경필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사업이다. 특히, 양주 Y.T.C 빌딩은 국지도 39호선 확장 시 20분 내로 서울 진입이 용이하고, 경기북부 6개 시·군과 연결, 홍축 일반산업단지 등 지역 7개 산업단지들과 5km 이내에 연계돼 있다.



양주시 광적면에 위치한 Y.T.C 빌딩 전경.

<사진=양주시 제공>

또한 지리적·입지적 이점과 소규모 회의실, 은행, 구내식당, 의료기관 등 벤처기업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다양한 첨단지원 시설을 갖추고 있어 벤처창업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Y.T.C에 입주해 제조·설비 공간 구축과 원활한 인력수급 및 육성, 수도권 대비 저렴한 경상비를 바탕으로 홍축일반산업단지 분양 계약을 통해 공장 증설과 제조기반 구축 등 창업 성공을 이룬 두 벤처기업 ㈜인투케

어와 ㈜라이브존의 사례는 Y.T.C가 벤처창업 지원과 인큐베이터 역할에 최적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북부 벤처창업 허브 조성사업 예산 확보는 관련 부처 및 관계자 면담과 설득, 브리핑 등 원대식도 의원을 비롯한 김건중 양주시장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Y.T.C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북부 벤처창업센터 허브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 Y.T.C 빌딩 4층 총8천 472㎡ 규모에 조성되는 벤처창업센터는 섬유, 의료기기 등 북부 벤처 허브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관련 60개사 내외를 선정하게 되며, 최장 5년 동안 기술이전, 특허, 해외판로 등 사업화를 경기도와 양주시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hihoilbo.co.kr

## 경기평택항만공-도의료원 소무역상인 대상 무료진료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평택항과 중국 용안항을 오가는 국제 카페리선에 승선해 소무역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양 기관은 복지소의계계를 위한 무료진료와 만성질환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해 소무역상인 등 100여 명이 진료 혜택을 받았으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선상진료는 국제여객선을 통해 중국을 오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의료 취약계층인 소무역상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승국 본부장은 "평택항 배후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소무역상인 대부분이 노령으로 이 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도의료원과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의료 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 유병욱 원장은 "장거리 이동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는 소무역상인 어르신들이 이번 진료를 통해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란다. 앞으로도 진료 뿐 아니라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문의:경기평택항만공사 동반성장팀(☎031-686-0622). 평택=김진태 기자 jtk@khihoilbo.co.kr

# 오! 배우고픈 화성

## 2015 화성시민체육대회

2015. 10. 4.(일) 08:20  
화성종합경기타운 보조경기장

The Way to Better Living  
같이 열리는 화성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관광도시,,, 추억의 시간이 열립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인 화성

# 인천 중·서구 880억 개발이익금 눈 뜨고 날릴 판

### 환수법 이해부족 탓 징수 못해... 'LH 부과' 소송 불가피 패소 가능성 크고 지루한 소송전 중 시효 소멸 위기 처해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내에서 개발 관련 세원이 줄 줄 새고 있다. 인천 중구와 서구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개발 건설사에 개발이익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니, 일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금 환수 소멸시효(5년)가 임박해 해당 지자체와 LH, 건설사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

24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자구역 개발사업은 2006년 12월 15일 개정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 대상이다. 해당 법 시행령 개정 전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에서 공동주택(356가구)을 지은 A 건설사와 법적 소송까지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가구 당 280만 원으로, 총 추정액은 10억7천여만 원이다. 연수구의 예를 든다면 영종하늘도시는 2

40억여 원(280만 원×8천800여 가구), 청라지구는 640억 원(280만 원×3만1천700여 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중구와 서구는 해당 지역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 개발 건설사에 대한 개발이익금 회수 추진이 어려워져서다. 여기에 각각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 준비 역시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시행자인 LH에 개발이익금을 모두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의 경자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

다. 그래서 LH와 추후 소송으로 가면 모두 패소할 있을 것이라 예기가 나온다. LH를 상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협의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단순히 택지개발촉진법(이하·택촉법)으로 이익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구청 담당자들은 LH와 택촉법항목으로 협의하지도 않은 상태다. 결국 LH와 개발부담금을 놓고 지루한 소송을 벌이는 동안 개발 건설사들이 내야 할 개발이익환수금은 시효가 소멸돼 결국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A구 관계자는 "택촉법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지만, 아직 LH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면밀히 확인해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LH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이익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곳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시행한 민간주택 개발사업은 해당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중부과 금지'에 따라 납부 대상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인재권 기자 ajk@kohoilbo.co.kr



명절 남은 음식 처리 걱정 싹~ 고양시 이마트 컨텍스트점 일렉트로마트에서 24일 모델들이 명절 후 남은 음식 정리 걱정을 덜어줄 식품건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식품건조기를 사용하면 식품의 수분이 20~50% 정도 제거돼 부피가 줄어들고 세균이나 곰팡이 증식이 어려워져 장기보관도 용이하게 된다. <사진=이마트 제공>

## 인천항 갑문 홍보관 쉼터 '꽃단장' 야외 조경지구 개선 마무리 그네 포토존 등 추가 조성

인천항 갑문 홍보관 쉼터가 새롭게 단장됐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 관람객들이 좀 더 편하게 시설물을 보고 싶을 있도록 야외 조경지구 개선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정관과 화면 속에서 배를 물면서 갑문 입항을 체험할 수 있는 '나도 선장' 코너 ▶갑문과 인천항을 배경으로 한 즉석 사진 현상기 '크로마키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기회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망대에는 갑문과

야외 조경지구 개선 마무리 그네 포토존 등 추가 조성

## 인천상의, 내달 14일 마술과 함께 경제경영 100분 특강

인천상공회의소는 다음 달 14일 오후 5시 30분 인천상의 3층 교육장에서 '제7회 인천상의와 함께하는 경제 경영 100분 특강'을 연다. 이번 강좌에는 마술 공연과 함께 즐거운 강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로 유명한 최종철 희망교육연구소장을 초빙해 '인생 성공을 위한 꿈과

희망 가꾸기'라는 주제로 고견을 들인다. 참가신청서는 인천상의 홈페이지(www.in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료는 회원 2만2천 원, 비회원 4만4천 원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곳은 다음 달 12일까지 참가신청서를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kjk@kohoilbo.co.kr

## 市, 중기 흡소핑 판매 지원 돌연 중단

### 6대1 경쟁 등 기업 호평 불구 市 재정난 이유로 예산 끊어 업계 "국내 판로 확보 필요"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뒷짐'만 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해까지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대형 유통망 개척과 판로 확대를 위해 'TV 흡소핑 판매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이는 우수한 상품을 출시하고도 인지도가 낮아 팔 곳이 없던 지역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흡소핑 방송 임점 수수료 중 일부인 200만 원과 판매액의 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 해 5개사 모집에 30여개 입

체가 지원할 정도로 이 사업은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흡소핑 지원사업을 돌연 중단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 재정난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2년간 시가 업체당 방송 임점수수료 총 2천만여 원 중 절반 가량(900만~1천만 원)을 지원했으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약했다는 점도 작용했다. 업계에선 시의 판로 확보 지원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과 거래선 발굴을 위한 대다수의 지원사업이 국내보다는 동남아시아와 중화권 해외 시장에 치중돼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TV 흡소핑 판매사업이 중단되다 보니, 국내 판로 확보마저 막막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내년부터라도 다시 흡소핑 등 국내 판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시

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 소재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천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 지원금부터 줄이는 발상 자체가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요청이 있어 2년 간 7천만~8천만 원의 예산을 흡소핑 사업에 지원했지만, '완전' 사례도 없었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오히려 같은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기·충청·경상·전라·제주도 등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주요 시·도는 올해도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2천만~2억4천만 원까지 예산을 TV 흡소핑에 집행하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ohoilbo.co.kr

## 롯데백 인천점 가을 세일 '귀향길 선물 마련하세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2일 간 '가을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세일은 잡화, 여성 및 남성 의류, 아웃도어, 스포츠, 아동 의류 등 각 브랜드 별 30~10% 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세일의 테마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로 지난 해보다 6일 앞당겨 최근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에 맞춰 실시한다. 우선 명절을 맞아 지하 1층 식품

관에서 '제수용품 한 상 차림전'을 연다. 복잡하고 어려운 제수용품을 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꾸렸다. 20~10% 할인된 가격으로 제수용품을 판매해 고객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5+1, 10+1 등의 세트 상품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5일부

터 막바지 선물 준비와 귀향길 준비를 하는 고객을 위해 지하 2층 점 행사장에서 '대한민국 no.1 노스페이스 그룹 패밀리 대전'과 '남성 가을패션 제안전'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을, 겨울 상품을 정가가 대비 최대 80%에서 50% 할인 판매한다. 이용우 점장은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인천 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인재권 기자 ajk@kohoilbo.co.kr

창단 44주년 1971~2015 INCHON MALE CHOIR 44th ANNIVERSARY SINCE 1971

www.incheonmalechoir.com

#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랑

## 제48회 정기연주회 인천남성합창단

일시 | 2015년 10월 30일(금) 오후 7:30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인천남성합창단 공연문의 : 010-9146-0100  
후원 : CBS 기독교방송 · CBS TV · 기호일보 · YOUNGLIM TIMBER CO., LTD.

특별출연  
지휘 이영만 피아노 이영신 소프라노 손가슬





# 고려 조상의 혼 담긴 연천으로 역사여행

### 내달 3·4일 미산면 제6회 송의전 고려문화제 진행 복식·제례 등 전통 체험하고 태조 왕건에 제사도

연천군이 미산면 송의전에서 '찬란한 역사, 고려가 돌아왔다'란 주제로 다음 달 3일과 4일 이틀간 '제6회 송의전 고려문화제'를 개최한다. 송의전은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을 비롯해 고려를 부흥시킨 현종, 문종, 원종 등 4명의 왕과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 사당이다. 송의전 고려문화제는 고려 500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고려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우선 10월 3일 고려를 주제로

다도, 복식, 제례체험, 전통놀이와 연천의 전통을 느껴 볼 수 있는 짬뽕공예, 목공예, 종이접기 등 다양한 체험이 준비돼 있다. 특히 하마비가 있는 송의전 입구부터 청사초롱과 연등으로 조성된 소원등 4길을 조성, 풍성한 불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행될 개막식에는 고려 스토리텔링을 테마로 전통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날인 4일 오전에는 개성

왕씨 종중과 16공신의 후손들이 태조 왕건 등 4명의 왕과 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송의전 추계 대제가 열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송의전 고려문화제를 통해 송의전 고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천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 광명 발전 이끈 영광의 얼굴들

### 제27회 광명시민대상 개인 4명·단체 1곳 선정

광명시는 '제27회 광명시민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시민봉사 개인 부문에 김정기(71), 시민봉사단체에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소하2동위원회, 문화예술 부문에 김승복(54), 체육 부문에 송봉섭(60), 지역경제 부문에 백남춘(85)씨 등 개인 4명, 단체 1곳을 '광명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민봉사 부문 김정기 씨는 (재)한국범죄방지재단위원, 광명지기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율 방범활동, 청소년 장학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시민봉사 단체 부문에 선정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 소하2동위원회는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버스정류소 청소활동,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경로 효친사랑함양, 사랑의 쌀 나누기 등으로

지역사회단체로는 최초로 시민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 김승복 씨는 한국음악협회 광명지부장,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명시 축제·음악 공연 기획 등 문화예술 보급에 공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 부문 수상자 송봉섭 씨는 광명시골프협회·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광명골프 장학사업 추진, 생활체육 육성, 도민제전 등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해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부문 백남춘 씨는 엘앤에스 대표이사는 광명상의 회장, 광명역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했다. 지난 1989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광명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 3일 시 개청 제33주년 광명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진다. 광명=김영환 기자 yhkim@khihoilbo.co.kr

## 동네방네 부천자연생태공원 국화 전시회

부천자연생태공원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화와 마주한 어느 날'이라는 주제로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생태공원의 이번 전시회에는 국화분재, 에펠탑 모형작 등 다양한 국화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3천㎡의 정원에 1만3천 점 이상의 국화가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매주 주말마다 프라임 우쿨렐레 앙상블, 필봉 농악 등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국화 차 마시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등의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국화 전시회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부천자연생태공원은 지하철 7호선까지 울역에 하차 후 1번 출구로 나오면 되며, 버스는 까치울사거리 정류장에서 700, 98, 56, 20, 5, 017, 013-1, 013-2번을 이용하면 된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 도공, 그림·글짓기 공모전 시상식

한국도로공사는 24일 교통센터(성남시 공내동)에서 '동일고속도로 그림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글과 그림 두 부문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대상의 영예를 안은 권유진(서울 지향초교 1학년) 양을 포함해 총 13명의 수상자에게 시상했다. 우수 작품은 추석명절 기간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부산 방향)에 게시할 계획이며, 11월에 열리는 세계도로대회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khihoilbo.co.kr

# 훈련~장비 완벽 준비태세 '최강 민방위대'

### 도, 창설 행사 국무총리상 운영·시설 등 고득점 획득 화생방 등 3개 종목 수상

경기도는 지난 21일~22일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이번 수상은 민방위대 편성과 운영,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등을 철저히 완벽히 유지사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창설 기념행사와 연계해 실시된 시·도 민방위 경진대회에서 수월 여성민방위대와 용인·안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민방위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산 지원민방위대도 대표로 출전, 화생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3개 종목을 겨뤄 각각 '최우수상'과 '노력상'을 수상했다.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은 "최근 연천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 등 안보 위협을 고려할 때 민방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앞으로 민방위대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40주년을 맞

이한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h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 성남화장장, 추석당일 1회 운영

오전 7시~8시 30분 가동  
성남시는 추석 당일인 27일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의 화장료를 1회지만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총 2만5천100위가 봉안된 '늘누리 1·2 추모원'을 찾는 추모객의 불편과 혼잡을 덜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8회까지 가동하던 15기 화장로(보수로 2기, 예비로 2기 포함)는 화장 횟수를 줄여 추석날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만 가동한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 주변의 교통 혼잡을 우려해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소내 모든 주차장(총 168면)을 전면 개방하고 안전요원 12명을 배치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모객이 13개의 추모 제단 사용을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야외에 임시 추모 제단 37개를 추가 설치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 연천군, 공공디자인스쿨 진행... 공무원들 사례별 학습

연천군은 24일 연천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스쿨 2회차 교실을 열었다. 이는 공무원들의 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통해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공간디자인학과 채민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환경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셉테드'와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

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적용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셉테드와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연천군에서 특히 효용성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공디자인 적용에 힘써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연천=정동진 기자 dsc@khihoilbo.co.kr

## 암환자들 힘얻는 휴식처 탄생 성남 중원구 '늘해랑' 개소 초·중기 환자 맞춤 프로운영

3개월간 9천300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암 환자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다. 늘해랑에는 초·중기 암 환자를 위한 요양·안정실, 상담실, 휴게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 이날 초부터 개방됐다. 암 환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원예·음악요법, 건강한 식탁, 웃음 기체조, 야외 텃밭 가꾸기, 자조모임 등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보건소에 등록돼 관리 받는 초·중기 암 환자는 395명이며, 환자의 가족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성남=이규식 기자 ksl23@khihoilbo.co.kr  
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암 환자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재활 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힐링센터가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 지하 1층에 마련됐다. 중원구 보건소는 지난 22일 저녁 주민과 초청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환자 힐링센터 '늘해랑' 개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늘해랑은 '늘 해와 함께 살아가는 밝고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중원구 보건소는 건물 지하 1층의 141㎡ 규모 빈 공간을 최근

## 용현산단 기협, 의정부시에 기부

의정부시는 (사)용현 산단단지 기업인 협회가 지난 23일 추석을 맞아 사회복지 시설에 전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김세트 1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업인협회가 기부한 김 세트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솔빛터에서 생산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어려운 시설에 나눔의 손길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사랑을 실천했다. 김태호 회장은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이럴수록 주변의 소외계층을 더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작은 손길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이 고루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항상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풍성한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세요.

기호일보 임직원 일동

금요논단 **강욱업**



인천시역사자료관전문위원  
기호일보 독자위원

### 다시 보는 인천의 섬

그동안 인천의 도시발전 방향이 동쪽으로 부천, 남쪽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송도경제특구와 북쪽으로 청라국제도시 조성으로 진행되었다면 이제 서해로 나아가야 시점이다. 인천에는 168여 개의 섬이 있다. 바다와 섬은 바로 인천의 역사이자 미래이고 가치 재창조의 자원이다. 섬이 가진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속에 융해되어 공기와 같은 존재이다. 당장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섬의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단순히 바다와 섬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 역사와 문화유산 이야기가 있기에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섬의 가치를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면, 우선 인천의 섬들을 권역별로 나누고 그 이미지를 형성화해 보는 것이다. 즉, 인천 각 섬의 특성을 시간

과 거리, 역사적 성격 등을 종합해 4권역으로 분류하고 그 대표적 이미지를 상징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동안도 인천의 여러 섬들이 각각각색의 테마로 소개되었지만 많은 섬과 다양한 테마들에 혼란을 갖게 되고 오히려 '그 섬이 그 섬'인 것 같아 변별력이 없지 않았나 싶다. 그런 의미에서, 제1권역은 '청정 바다와 사람이 그리운 섬, 서해 5도'이다. 4시간 이상의 먼 거리에 위치한 백령도, 대(소)청도, 연평도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만큼 사람이 그리운 섬이다. 선사시대인의 삶의 흔적인 패총으로부터 조선시대 공도(空島)화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백령진, 말목장, 염전 운영 등의 역사와 고래잡이, 조기잡이 등 과거 풍부한 물산의 중심이었던 지리·공간적 역할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권역은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섬, 강화군도'

이다. 1시간 정도의 가까운 거리지만, 왕도(王都)이자 보장처(保障處)였던 강화도의 역사성은 많은 문화유산과 더불어 타 지역과는 구분된다. 여기에 마니산 참성단으로부터 불음도, 매음도 등 각 섬의 지명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제철의식 관련 유래들, 그리고 역사고도(歷史古都)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강화도는 이제 성지(聖地)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제3권역은 '벚길 따라 풍경 따라 떠나는 섬, 덕적군도'이다. 2시간 거리에 위치한 덕적군도는 전근대 등주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가는 교역로의 거점이었고, 문갑도, 굴업도, 소야도 등 주변 경관은 '덕적 8경'에서 나타나듯이 한편의 시(詩)로 표현할 정도로 운치 있는 공간임을 이미지화할 수 있다. 제4권역은 '바다가 육지인 듯 가까운 섬, '인천만(仁川灣)'의 섬'이다. 자월도, 승봉도, 대(소)이작도와 영흥도, 장봉도, 모도, 신도, 시도, 그리고 중구 관할의 영종도, 팔미도 등 1시간가량의 거리에 위치하여 손에 닿을 듯 가까운 섬들, '섬 마을 선생님', '천국의 계단' 등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도 알려

져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인천의 168개의 섬들을 4권역으로 분류하여 특성화할 수 있다면, 그 내용들을 아담한 안내 소책자에 담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권역별로 대표적인 공간에, 그곳이 노천이든 여객터미널 등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든 섬들의 '문화유산 이야기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도 섬 가치 제고의 방법이다. 현재 인천의 지향점은 '가치 재창조'이다. 가치 재창조의 바탕에는 2030년 인천 역사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현실적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정신적 가치 창출의 의미'가 인천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인천 가치 재창조의 바탕이 되는 '인천만(仁川灣)'의 섬들은 미래의 자산이기에 '보물섬'이라 불릴 수 있다. 다만, 섬 주민과 여타의 인천인들이 섬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에 대한 관심과 재인식을 통해 그 '정신적 가치 창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시해안 **광물**

천연으로 나는 무기물로서 고체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질이 균일하고 화학성분이 일정한 고체물질들을 광물이라고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각은 여러 종류의 암석으로 구성되고 이 암석은 한 가지 이상의 광물로 구성되며, 광물은 지각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다. 무기적(無機的)으로 생성된 천연산 고체로, 일정한 화학조성과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광물은 인공적으로도 천연산인 광물과 성질이 똑같은 인조광물이나 합성광물을 만들 수 있다.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은 주로 규산염광물(矽酸鹽礦物)들로, 전체 지각의 97%를 차지한다. 지각을 구성하는 주성분광물들은 부피로 볼 때 사장석(斜長石)이 42%, 칼리장석이 2

2%, 석영이 18%, 휘석과 각석석(角閃石)이 9%, 흑운모가 4%, 감람석이 2%, 기타가 3% 라고 한다. 광물의 성질에는 결정형태·색·조흔·경도·광택·투명도·발광성·벽개·단구·비중·점성·자기성과 전기에 대한 반응, 방사능·열에 대한 안정성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성질에 따라 용도도 달라진다. 그 동안 알려진 광물 종은 3천여 종이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은 300여 종으로, 유용광물이 120여 종에 달하고 이들 중 금속은 금·은·동·연·아연·철·망간·텅스텐·몰리브덴·주석·장원 등이 주요한 광종이다. 광물과 광물로부터 만들어진 생산품들은 석기시대의 부식물에서부터 현대 핵에너지시대의 핵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현대기계문명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중앙지질광물연구소가 설립, 국내에서 산출되는 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국내자원개발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자원개발 투자사업이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어 자원개발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광산 재개발, 국내·외 광산개발과 연계된 소재사업 투자를 통한 광물자원공사 업무 역역 확대 및 경영수지 개선 위해 국내자원개발로 지난해 기준 산화몰리덴 생산분야 등 총 6개 사업에 610억 원을 투자했으나 79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손실 규모가 지난 2011년 102억 원에서 지난해 15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를 불분하고 자원개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역량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천=최승필기자>

### 유럽기행 (3)

#### 김하기의 하기C 칼럼



칼럼니스트/작가

나는 두 호수 사이라는 인터라켄에서 일어나 아침을 모닝 빵과 스위스 치즈로 먹었다. 유럽의 지방, 해발 3천454m의 융프라우. 그 중 한 봉우리인 융프라우 요흐가 우리의 목적지이다. 백두산이든 융프라우든 산은 날씨가 예사대로 날씨가 흐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눈발이 심하게 날린다. 처음에는 새벽 미명엔 불을 켜는 속에 파묻힌 스위스 집들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사진을 찍어 보니 바로 크리스마스 카드다. 그러나 열차가 툰니바퀴 레일 위로 올라갈수록 차창이 하얗게 변하더니 나중엔 한 장의 백색 도화지가 되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사방으로 눈에 갇혀 한 뼘 전망도 볼 수 없었다. 터널로 연결된 작은 얼음공전에 들어가 얼음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 잠시 일찍한 군주노릇을 했다. 그러나 융프라우요흐에서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게 하나 있었다. 그것은 한국산 컵라면으로 그 맛은 세계 최고봉에 오른 기본이었다. 가격은 컵라면 14유로로 우리 돈으로 1만4천 원 정도였다. 융프라우요흐의 눈과 얼음을 뜨거운 컵라면으로 녹이고 우리는 하산했다. 나는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눈 덮인 스위스 젓나무들을 찍어왔다. 이 거대한 젓나무들은 위풍당당한 스위스 용병들 같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 같기도 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내려와 인터라켄에서 한식당에 들어가 꼬리곰탕과 김치로 식사를 했다. 비좁고 초라한 식당 분위기에 비해 맛이 괜찮았다. 그런데 한식당 문 위에 달아 놓은 태극기가 ½쯤 찢겨있고 마치 바람에 걸레처럼 너털거렸다. 옆집 중국 식당의 말쑥한 오성홍기, 맞은 편 인도 식당의 깔끔한 인도국기와 비교되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나는 식당으로 도로 들어가 식당 주인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태극기가 낡고 찢어져 있는데 바꿔 달아주세요." 주인이 불쾌한 얼굴과 불멘소리로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바꿔 달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보고 있는 컴퓨터로 얼굴을 찍 돌려버리고 말했다. 무뎠했다. 한국의 얼굴인 태극기를 넘겨쳐 걸어놓고 무슨 한식을 팔겠다는 건지, 상한 기본을 억누르고 음식점을 나왔는데 성당이 보였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가게주인이 깨끗한 태극기로 바꿔 달도록 주여, 도우소서.' 식사와 쇼핑이 끝나고 인터라켄에서 스위스 밀라노로 가는 버스를 탔다. 어젯밤 우리가 탄 카포치 버스는 앞으로 유럽투어 전 일정 동안 우리를 태우고 다닐 전세버스란다. 이탈리아인인 대머리 기사 아저씨가 인상이 좋고 친절했는데다 운전은 편하게 해 기분이 좋았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알프스산맥을 넘는데도 힘에 부쳤다. 그런데 꼬끼리와 백마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 한니발과 나폴레옹은 얼마나 대단한 영웅들이나. 알프스를 넘어니 바로 이탈리아의 제2도시 밀라노였다. 밀라노의 첫 도착지는 감격스럽게도 다빈치가 몸을 위탁했던 스포르차 대공이 살았던 스포르체스코성이었다. 다

빈치는 고향 피렌체에서 제대로 푸대접을 받았다. 메디치는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후원하고 정작 자신은 무시하자 대공에게 몸을 위탁하기로 했다. 다빈치가 메디치에게 스포르차 대공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부탁하자 메디치는 다빈치가 단지 만들어진 연주만 잘한다고 써주었다. 다빈치는 이 추천서를 위·변조해 자신이 만들어진 연주뿐 아니라 그림과 건축, 무기 제작과 요리, 파티에벤트 등 다양한 방면에 재능이 있다고 적었다. 난이한 장의 공문서 위조사건이 만들어진 연주자 다빈치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만능 천재 예술가로 만들었다고 믿는다. 스포르차 대공은 다빈치를 믿었고, 다빈치 또한 자신이 스스로 열거한 이 재능들을 대공에게 입증하기 위해 17년 동안 이 스포르체스코성에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 진짜로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스포르체스코 성에 이어 밀라노 두오모성당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다. 파리의 노트담과 밀라노의 두오모성당 둘 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양식이다. 고딕양식은 고트족의 양식이란 뜻인데 이들 고트족들의 고향이 스위스다. 고트족들은 고향의 눈 덮인 젓나무를 그리워해 성당 건물에 젓나무처럼 높고 뾰족하게 지었고 그걸 고딕이라 불렀다. 어저 열차에서 본 알프스의 하늘로 치솟아 오른 젓나무들이 밀라노의 두오모 뾰족 종탑의 원형이었던 것이다. 여행은 삶의 연결이고 종합이고 결국 모든 삶은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역민참여정보사업의 일환입니다.

기호일보 kihooilbo.co.kr
회장·발행인 서강훈 / 편집·인쇄인 한창원 / 편집국장 전기식 / 경기지사 편집국장 정훈영
인천본사 032-761-0001 / 경기본사 031-898-6767-8 / 광교본사 031-872-2990

상식한도막
강동주택
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강동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거나 금액대 나올 경우, 보통 시세 이하로 팔려 세입자나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등이 피해를 입게 된다.

피즈북소리 2015
책 좀 읽는 어른이를 위한 인문 놀이터
은희경, 천명관, 이병률, 손숙, 황교익, 박준우, 이철희, 질은, 에디킴 등
300여 국내외의 저자, 200여 국내외의 우수 출판사와 문화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70년을 책으로 돌아보는 테마전시, 작가와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작가 워크숍
www.pajubooksori.org



# 눈속 윤활유 막히면 '눈 여드름' 생겨요

명·의·건·강·체·크  
안검염

마이봄선 입구 폐쇄 염증 유발  
눈물흘림·눈꺼풀 부종 등 증상  
안구건조증 60~70%가 걸려  
온열마사지·청소 등으로 호전



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훈 교수는 "안검염의 발병원인은 호르몬 변화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과 정상적인 마이봄을 배출하는 마이봄선의 폐쇄로 인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이봄은 눈과 눈꺼풀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유로 마이봄선은 기름샘이라 볼 수 있다. 이 마이봄선의 입구가 부분적으로 막히게 되면 마이봄의 배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만성화 되면 입구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로 인해 마이봄의 정체가 일어나고 마이봄선 내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안검염에 걸리면 눈물 흘림·이물감(눈 안에 딱 물질이 들어간 느낌)·피부 각질·눈꺼풀 부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눈 주위에 붉은 테를 두른 것처럼 충혈되기도 한다. 또한 궤양성 경우에는 고름이 생기며 작은 궤양이 함께 나타난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눈꺼풀에 대한 온열 마사지와 청소에, 실제로 많은 논문에서 그 치료 효과를 검증해 왔다. 이훈 교수도 역시 중증 이상의 안검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온열 마사지와 청소가 안검염 증상을 호전시키고 눈물 내 염증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조사해 발표했다.

눈꺼풀 청소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면봉을 이용한 청소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면봉이 미끄러지면서 각막 찰과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봄을 효과적으로 짜내기 위해 고안된 포셉(일종의 핀셋과 비슷한 의료 기구)로 막힌 마이봄을 짜기 위한 도구(구)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청소 전에 온열 마사지를 적절히 할 경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훈 교수는 "눈꺼풀 온열 마사지와 청소를 환자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환자 본인의 의지가 생기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지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뢰인과 환자 간 충분한 교감과 대화를 통해 하루 2회 눈꺼풀 온열 마사지와 청소 습관화가 안검염의 치료에 중요하다. 항상 눈꺼풀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안과 이훈 교수>

# 두통·어지럼증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

지난해 뇌졸중 환자 7.9%나 늘어



증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인 멍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개를 위로 들 때 어지러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장경술<사진>교수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뇌졸중 환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7.9%라는 높은 증가율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3.2% 증가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증가세로,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7.9%, 60대 6.3%, 70대 6.5%, 80대 14.7%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장경술 교수는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뇌졸중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비책을 설명했다.

그는 "흡연·과음·비만·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수년간 뇌혈관에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혈관이 터지거나(출혈성) 막혀(경색성) 뇌졸

것도 의심 증상의 하나"고 설명했다. 장경술 교수는 "이때 뇌가 보내는 위험신호를 간과하고 두통약을 먹으며 방치하는 사람이 많다"며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겪은 사람 중 5%는 한 달 내에, 3분의 1은 3년 이내에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거나 한 번 뇌졸중을 겪었던 사람은 의사와의 상담 또는 대비책을 안내하는 교육에 참여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lbo.co.kr



메·디·컬·칼·럼  
허리건강

# 허리디스크 초기 치료 중요... 흡연, 증상 악화 큰 요인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 일을 하는 직장인들의 허리 건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 장시간의 근무를 끝내고 나서도 밥을 먹거나 술자리를 갖는 등 대부분의 활동을 앉아서 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 자는 시간과 서서 움직이는 시간을 빼고는 거의 앉아서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생활 패턴은 허리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다.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본다.

첫째, 책상에 앉을 때는 허리는 반듯이 펴서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고관절(엉덩관절)과 무릎의 각도는 90도 정도 유지되도록 한다. 컴퓨터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목을 앞으로 길게 빼는 습관이나 책상에 엎드려서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고쳐야 한다.

둘째, 잠을 잘 때 습관적으로 엎드려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허리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반듯하게 누워서 자며 이때 무릎 밑에 베개 등을 받쳐두고 자는 것이 허리건강을 위해 좋다.

셋째, 업무 중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은 근육의 경직 등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디스크 예방은 물론 긴장 완화에 좋고 업무 효율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허리 통증이 허리디스크로 가게 되면 단순 요통에서 하지 통증으로 번질 수 있다. 요통은 더욱 심각한 통증을 동반하고, 허벅지와 종아리가 뻐뻐해지면서 당기거나 다리 근력이 약화되는 한편 골반이 비틀어지는 느낌이 수반된다. 이를 치료 없이 계속 방치하면 보행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하면 하지 마비 등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인천마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성주용 원장은 "현대인들의 고질병 중 하나인 허리 통증은 직장인들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리디스크 역시 초기에 발생했을 때 바로 치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

기를 놓쳐 증상이 심해지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리 디스크의 발생·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흡연이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몸의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고 조직 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 이런 경우 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뼈의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또 척추 뼈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디스크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므로 금연을 하는 것이 척추건강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점심식사 후 잠깐 틈을 내 사무실 주위나 공원을 걷는다면 맑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도움말= 인천마디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성주용 원장>

# 인하대병원, '환자 안전의 날' 행사 열고 JCI인증 대비 노력 당부

인하대병원이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에 대비해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손 위생관리를 위한 미션 수행과 환자안전상식퀴즈대회·외부강사 초청 특강·환자 및 보호자 대상 진료과정 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질문

이나 염려가 있으면 말하세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려 직원들이 참여했다.

김영모 인하대병원장은 "의료원 전 부문 JCI 2회 연속 인증을 통해 국제수준의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했다"라며 "내년 6월에 있을 JCI인증에도 전 직원이 철저히 대비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유태 기자 cyt@kohoilbo.co.kr

#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승원 교수 세계 인명사전 2년 연속 등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이비인후과 이승원<사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 2년 연속 등재(2016년 판)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 후와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국제인명센터(IBC) 2015년 21세기 세계의 우수 지식 2천 명'에도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6월 국제인명센터가 매년 전 세계에서 의료 분야 발전에



기려한 의료인 100명을 선정하는 '히포크라테스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135년 역사의 미국 후드유성학회에서 한국인으로 '젊은 교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ohoilbo.co.kr

www.LH.or.kr
from LH

##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역대 최저금리 시대! 예금보다 부동산!!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 토지 및 아파트

구분	내용	연락처
토지	수원호매실 상업용지	031-250-8368
	오산세교 상업용지, 주차장,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주거전용)	031-250-3923 031-250-3943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내 산업/지원시설용지	031-379-6973
주택	용인서천 민간참여 블록형 단독주택	031-205-4440
	수원세류 1·3블럭 선착순 동호지정 수의계약	031-248-9077~8

**LH** 경기지역본부





# 신선한 즐거움 '솔솔'... 3색 파일럿 방송 안방 '노크'

<시험제작>

## 미리보는 TV 프로그램

올해 추석 방송가도 '먹고 듣는' 콘텐츠가 대세다.

요리와 음악을 소재로 한 다양한 파일럿(시험제작) 프로들이 추석 대목을 공략할 준비를 마쳤다.

# 제2의 '복면가왕' 찾아라...다채로운 음악 바라이어티

지난 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프로그램은 가면 쓰고 노래하는 MBC TV '복면가왕'이었다.

'복면가왕' 흥행에 자극받은 방송사들은 추석을 맞아 다양한 음악 바라이어티를 준비했다.

KBS 2TV '아이돌 전국노래자랑'(29일 오후 3시)은 1TV의 장수 프로인 '전국노래자랑'과 아이돌 가수들의 대결 무대를 접목한 프로다.

26일 오후 10시45분에 방송되는 SBS TV '심폐소생술'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지 못한 명곡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육주현과 린, 정인, 이영현이 이승철의 '늦장 부리고 싶어', H.O.T의 '홀로 서기'와 '열등감', 아이유 데뷔곡 '미아', 혁오의 '아이 해브 노 후타운' 등 숨은 명곡들을 되살려낼 예정이다.

'복면가왕'으로 상반기 패자를 부른 MBC는 두 편의 음악 특집을 준비했다.

25일 오후 9시30분 시작하는 '듀엣가요제 에잇플러스'는 씨스타 소유, 에이핑크 김남주, AOA 초아, 시크릿 전효성, 미쓰에이 민, 포미닛 허가윤, 애프터스쿨 리지, 마마무 휘인 등 걸그룹 8팀의 멤버와 일반인이 듀엣 무대를 선보인다.

가요계 르네상스로 평가받는 1990년대 인기그룹들도 MBC TV '어게인-인기가요 베스트50 95-96'(24일 오후 11시15분)을 통해 오랜만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DJ.DOC와 임창정, R.ef 등 12팀이 당대 대표 음악프로였던 '인기가요 베스트50'을 재현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 추석에도 '먹방'은 계속된다

SBS TV 추석특집 '어머니가 누구냐'는 명절 방송가의 단골 스타인 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이 함께 출연해 요리 대결을



음방

먹방

복귀



아이돌 전국노래자랑.

노래자랑~숨은 명곡 찾기  
복면가왕 '대박신화' 뒤이어  
다양한 음악프로그램 선보여



세계 미(미)식 대전.

아이돌 어머니·8개국 셰프 등  
시청자 입맛 사로잡을 요리대결  
백종원 '만능 양념간장'도 화제



인어들의 히치하이킹.

파문 일으켰던 노홍철·이수근  
잇달아 지상파 방송 복귀 채비  
전현무, 친정 KBS서 '쇼' 진행

벌이는 프로다. 방송가를 중흥무진인 전현무가 진행을 맡았다.

27~29일 방송되는 KBS 1TV '세계미(미)식대전'은 쌀 요리를 개발하기 위한 각국 요리사들의 대결을 담은 3부작 프로다.

쌀이 주축인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리스토로 유명한 이탈리아, 쌀 요리가 생소한 스웨덴까지 8개국 요리사들이 쌀을 이용한 한 그릇 요리에 도전한다.

주부들의 애정 프로인 tvN '집밥 백선생'은 지난 22일 밤 이미 추석의 단골 메뉴인 갈비찜을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일찌감치 공개했다.

요리연구가 백종원은 갈비를 판별하는 법부터 시작해 갈비찜과 불고기 등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만능 고기양념간장' 제조법까지 설명해 화제를 모았다.

이밖에 라디오와 예능을 접목한 KBS 2TV '속보이는 라디오-여우사이'(29일 오후 10시 55분)와 마니아를 넘어선 '덕후' 문화를 조망하는 MBC TV '능력자들'(방송 날짜 미정), 부활 갑태원 부자, 래퍼산이 부자, 에이핑크 보미 부녀가 출연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돌아보는 MBC TV '위대한 유산'(미정) 등이 눈길을 끈다.

# 노홍철·이수근도 복귀...전현무 친정 복귀 성적표도 관심

이번 추석 방송가를 관통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복귀'다.

MBC TV '인어들의 히치하이킹'에서는 음주 운전 파문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노홍철이 11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노홍철을 비롯한 4명의 젊은이가 각각 손에 18만 원을 찬 채, 스무날 동안 나라 초파원에서 포르투갈 호기꽃까지 유럽을 횡단하는 모험을 담았다. 27일과 28일 오후 11시 15분에 2부작으로 방송된다.

불법 도박으로 물의를 빚었던 개그맨 이수근도 트로트 오디션 프로인 SBS 라디오 추석특집 '트로피'로 지상파 방송에 복귀한다.

KBS 2TV '전무후무 전현무쇼'(28일 오후 8시30분)는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방송인 전현무가 3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는 첫 프로다.

'전현무쇼'는 전현무의 일상 생활과 방송 활동 등 다양한 모습을 지금껏 국내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포맷으로 담아낸다고 예고한 상태다.

Table with program schedules for KBS I, KBS 2, MBC, SBS, OBS, and EBS. Columns include channel, time, and program name. Includes a '텔레비전' section on the left and a '프로그램 문의' section on the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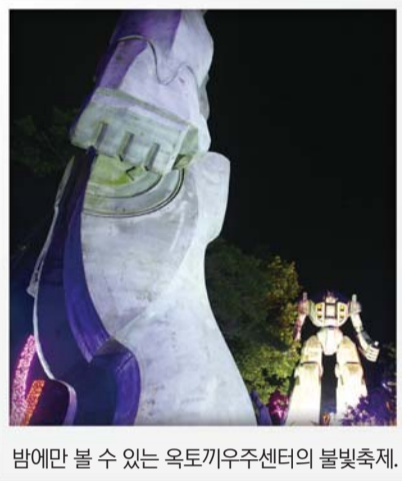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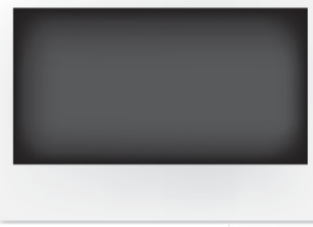
인천의 대표적 명소가 된 중구의 차이나타운은 연휴에 중국의 맛과 정취를 맛보고 싶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어린이과학관의 별난물건 기획전.



송월동 '동화마을'은 어린이들의 필수코스.



밤에만 볼 수 있는 옥토끼우주센터의 불빛축제.



계양산 둘레길을 찾은 이들이 쌓이는 돌무더기가 눈길을 잡는다.



인천의 대표 공연으로 자리잡은 '비밥'.

# 연휴가 2% 부족한 당신, 가족과 함께 “심표를 찍으세요”



올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이나 된다. 주말과 겹쳐 고향 가는 길 적잖은 교통체증이 예상되지만 휴일 마지막 날 덩으로 주어진 대체휴일은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떠나 보면 어떨까. 한가위를 다 즐기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놀이공원 등 가볼만한 8곳을 골라봤다.

### 개최한다.

인천시 무형문화재와 함께 하는 축제로 꽃밭이곳·취모리잡가·인천근해갯가노래벚노래·갑비고차농악 등 전통 공연에 이어 강강술래·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도 진행된다.

또 단청·지화·자수 체험과 연 만들기 등 준비한 민속문화 체험 행사가 많다.

부대 행사로 노래자랑대회를 비롯해 시민들이 참가하는 모든 대회의 등수에 따라 상품이 지급되는 특별 이벤트와 경품 추첨도 있다. 문의: ☎032-422-3492.

### # 강화도 옥토끼우주센터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항공·우주 테마파크인 옥토끼우주센터는 추석명절을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한가위만 같아라 하이라'란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인 투호던지기·제기차기 등을 비롯해 건강·사랑·행복·장수 등 소망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등도 진행한다.

또 옥토끼우주센터의 새로운 볼거리인 불빛축제

제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옥토끼우주센터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야경에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 곁들여진 지역 명물 공연으로 인기가 높다. 입장료: 1만3천 원~1만5천 원. 문의: ☎032-937-6917~9.

### # 인천중구문화회관 '비밥(BIBAP)' 공연

추석 연휴에도 인천의 대표적 문화공연인 '비밥(BIBAP)'무대는 계속된다. 하루 1회 공연으로 26일 오후 8시, 27일 오후 6시, 29일 오후 8시에 시작된다. 추석 당일인 28일은 정기 휴관일이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비밥'은 스키·피자·누들·비빔밥 등 음식물을 소재로 한 공연물로서 영국 에딘버러 축제에서 매년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작품성도 뛰어난 작품이다. 특히 공연이 끝나면 극장 로비에서 비밥 배우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관람료는 VIP석 4만 원, R석 3만 원, S석 2만 원이다. 인천시민 50%, 중구구민 및 미취학 아동 60%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1644-1248, 032-760-6426.

### # 인천어린이과학관 특별전시회 '별난물건 박물관'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은 생활 속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 작품들과 빛·소리·과학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기획전 '별난물건박물관'을 추석 연휴 내내 운영한다. 전 세계에 있는, 엉뚱하고 상식을 깨는 기발한 물건들을 다 모아 단숨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것 만지고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와 과학적 원리까지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른들에게도 엉뚱하고 기발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또 공로로 만들어 낸 예술 '키네틱 아트'와 롤링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특별전-롤링볼 아트전'도 또 다른 볼거리다. 예약은 인터파크(www.interpark.com) 등 예약전문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관람료: 1만 2천 원. 문의: ☎1600-0756.

### # 인천스퀘어원, 매직컬 '알라딘'

매직컬 전문 극단인 신비엔터테인먼트가 26일부터 28일까지 인천스퀘어원에서 매직컬 '알라딘' 공연을 진행한다. 마술과 뮤지컬의 합성어인 매직컬은 기존의 퍼포먼스 위주의 마술 공연이 아닌 마술과 애니메이션 등이 합쳐진 환상적인 연출로 유명하다. 전

문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선보이는 공연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같이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29일 화요일은 휴관.

관람료: 9천900원. 문의: ☎032-818-0789.

### # 차이나타운 거리 및 송월동 동화마을

화교인들이 직접 만든 정통 중국요리를 맛볼 수 있는 '차이나타운 거리'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색다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중국인 점포주택에서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 등 다양한 물품을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

또 개화기 청나라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싼값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인 자장면에 대한 모든 것이 있는 자장면 박물관도 가볼만한 곳이다. 삼국지의 명장면이 해설과 함께 총 160장면의 그림으로 표현된 150m의 대형벽화인 '삼국지 벽화거리'도 지역 명물이다.

송월동 동화마을은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운을 찾는 사람들은 꼭 찾는 명소다.

이곳에 가면 골목길을 따라 세계 11개의 동화를 그린 벽화와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오즈의 마법사(미국)를 배경으로 한 '도로시길', 프랑스 '빨간모자 길', 안데르센(덴마크) 소설의 '엄지공주 길', 헨젤과 그레텔 남매(독일)와 과자집이 만들어져 있는 '과자나라 길' 등 예쁜 동화 이야기를 동화마을에 오면 볼 수 있다.

### # 계양산 둘레길

추석 연휴에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행지로 계양산 둘레길이 꼽힌다.

인천시 지정 제1호 공원인 계양산(해발 395m)은 둘레길이 많고 생태공부도 가능한 지역이 많아 주말이면 서울 시민들도 찾는 명산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내려 연무정을 거쳐 정상까지 오르는 등산로는 1시간 10분 내외 거리로, 산을 오르며 계양산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계양산 서쪽으로는 조선 고종 20년(1883년)에 해안방비를 위해 주민들이 축조한 중심성(聚心城)의 흔적이 정매이고개 능선을 따라 걸쳐 있다.



추석 연휴에는 날씨가 청명하다고 하니 한 시간 남짓 걸을 수 있는 계양산 둘레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월미공원·도호부청사 마당서 전통체험 민속놀이하며 가족의 똘똘해지고

중구 차이나타운 '원조' 짜장면에 요기 발길 닿는 데마다 개향기 정취 물씬

어린이과학관 별난물건전·매직컬 공연 애어른 모두에 인기 교육효과도 덤





한국민속촌.

# 민속놀이 즐기고 달빛 따라 산책 명절 스트레스 안녕~

## 연휴 경기도 가볼만한 곳

여로부터 한가위에는 고향을 찾고 가족과 정을 나눈다. 고향을 찾는 길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잠시 벗어나 편안한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여유를 찾아본다. 함께 장을 보고 산책도 즐기고 전통문화를 찾아도 좋다. 그러면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는 더없이 정겹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르면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빌어본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 풍성한 한가위 즐기고~ '한국민속촌'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온 우리의 생활풍습을 한곳에 모은 한국민속촌은 생생한 문화체험과 재미가 넘치는 전통문화 테마파크다.

명절 연휴에 한복을 차려 입고 가족사진을 남기기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인 한국민속촌은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아 '한가위 즐기고'를 테마로 오는 29일까지 다양한 공연과 행사를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 '거북놀이'와 민속촌의 인기 좋은 개성만점 조선 캐릭터들이 만나 관람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퍼레이드 '한가위 풍년행렬'이 불만하다. 어깨춤이 절로 나는 흥겨운 퍼레이드는 연휴기간 동안 매일 두 차례 펼쳐진다. 퍼레이드에 이어 진행되는 코믹마당극 '한가위 마을잔치'도 놓치지 말아야 할 공연이다. 농악대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되는 풍년과 평안을 비는 전통 풍습 '성주고사'에 참여해 우리가족의 행운을 빌 수도 있다. 고사 후에는 고사어 사용떡과 술을 나누는 음복행사가 이어진다.

그밖에 송편 빚기 체험과 전통 농기구 체험, 콩서리 구워먹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가 가득하다. (문의: ☎031-288-0000/www.koreanfolk.co.kr)

# 수원 화성의 달맞이 명소 '서장대' 조선시대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화성. 그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서장대는 장수가 성의 안팎을 살피며 병사를 지휘하던 누각이다.

화성의 유려한 곡선과 수원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특히 야경을 감상하기 좋은 장소로 소문난 곳이다.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는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어, 특히 추석에는 많은 가족들이 찾는 달맞이 명소다. 서장대 바로 뒤편 서노대에서는 은은한 조명이 감도는 서장대와 한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덕평자연휴게소, 서장대, 실학박물관 실학 한마당.

<사진=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제공>



가위 보름달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인근의 화성행궁이 밤 9시까지 야간개장 중이니 저녁 식사 후 행궁을 둘러보고 서장대에 오르는 화성달빛산책을 권해본다.

마침 30일까지 화성일원과 화성행궁의 무료 입장기간으로 연무대의 국궁체험은 물론 창룡문과 행궁 사이를 오가는 화성열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가위를 맞아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에서는 무예24기공연, 장용영수위의식, 북청사자 놀음 등 공연과 정조대왕 거동행사가 펼쳐진다. (문의: ☎031-290-3600 / www.koreanfolk.co.kr)

# 진화하는 휴게소의 새로운 휴식 '덕평자연휴게소' 덕평자연휴게소는 카페를 연상시키는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가와 다양한 아웃도어 매장, 잘 다듬어진 산책로와 공원 등, 다양한 시도로 고속도로휴게소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진화하는 휴게소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차별화된 여러 장점 중 덕평자연휴게소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자. 자작나무와 백일홍을 사이 물길을 따라 사계절 화려한 꽃이 만발한 러브가든과 허브향이 가득한 보타닉 힐, 소나무가 우거진 건강산책로 덕평숲길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은 휴게소가 아니라 수목원을 떠올리게 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에서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과 카페메뉴를 배달시킬 수 있는 '플라잉 푸드' 서비스는 금상첨화다.

민속촌 풍년행렬·마을잔치 볼거리 수원화성 서장대 오르며 야경 감상 덕평자연휴게소 허브향 정원 만끽 광명시장 빈대떡 등 먹는 재미 '폭' 도내 박물관들 전통연희 체험 마린 명절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 딱 좋아

휴게소 정원과 이어진 강아지 파크 '달려라 KoKo'는 국내 최초의 애견 체험학습장과 자연지형을 이용한 애견놀이터를 갖추고 애견관련 정보 전시관과 애견레포츠 공연까지 선보여 반려견을 동반한 가족이나 호기심에 방문한 방문객 모두에게 사랑 받는 공간이다. (문의: ☎031-645-0001 www.dpecoland.com)

# 문화관광형시장으로 거듭난 '광명시장' 추석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은 활력이 넘친다. 광명전통시장은 광명사거리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일장에서 지금은 4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상설시장으로 발전했다. 지역농가에서 재배한 싱싱한 채소 등 안전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갈국수, 빈대떡 등 맛있고 저렴한 먹자골목 또한 광명시장의 자랑이다. 아울러 카페와 전자물품보관함 등을 갖춘 고객원터를 운영한다. 매주 추억의 장터를 운영해 다양한 주제의



체험을 진행하며 매월 2회 고객맞이 쿠폰행사 열며 고객에게 즐거움과 행운을 선물합니다. 찾고 싶은 시장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매월 시장의 핫뉴스를 담은 시장웹진 '반짝반짝 광명'을 발간하며 모바일웹과 다양한 SNS를 활용해 실시간 고객과 소통한다. 시장소개는 물론 상점소개와 상인이야기를 통해 고객에게 한 걸음 더 친밀하게 다가간다. 상인회를 중심으로 한 노력으로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진화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문의: ☎02-2614-0006 / sijang.gm.or.kr)

# 경기문화재단, 박물관 미술관 특별행사 경부고속도로 수원 나들목 5분 거리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 뮤지엄파크는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2~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 노인까지 눈높이를 모두 만족시킬 콘텐츠가 한 곳이 모여 있어 명절 가족 단위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먼저 경기도박물관은 추석 특별행사로 28일 오후 1시~4시까지 박물관 앞마당과 원형극장에서 추석 세시풍속 체험과 공연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팽이와 제기만들기, 탈만들기, 팻줄만들기 등 체험 행사와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호던지기, 단체 줄넘기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떡매치기, 산적만들어먹기 등 추석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추석 무렵 행해지던 경기도놀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북놀이(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도 재현된다. 오후 3시부터는 길놀이, 설장고, 사물놀이, 배나놀이, 판굿, 사자춤, 대동놀이 등 다양한 전통연희가 1시간 동안 공연된다.

기획전시실에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어느 독립운동가 이야기'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문의: ☎031-288-5351)

3세 유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추석 기간 교육프로그램과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휴 첫날이며 개관기념일인 26일에는 인체 강화 전시 '우리 몸은 어떻게?'의 연계 프로그램인 '잡이 술사 아로마 립밤 만들기'와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생일이 같은 어린이의 무료입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아울러 박물관 입장 후 찍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사진 올리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gcm.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31-270-8627)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경기도미술관은 26일, 28일, 29일 '가족과 함께하는 무한 색도전'을 운영한다. 6세 이상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색채를 주제로 진행된다. 색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구성원의 성격에 맞는 색을 찾아 자유롭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염색용 크레오로 에코백을 개성 있게 꾸며 가져갈 수 있다.

이밖에도 26일에는 미술관 3층 로비 배움쉼터에서 미니 조각을 만들고 사진을 찍어 전시해보는 '리듬공방'이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3시~5시까지 2회에 걸쳐 열린다. 관람객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획전으로 경기도의 이름난 명승(名勝)과 실경(實景)을 그린 조선시대 그림에서부터 근현대 풍경화까지 망라한 '산, 강, 사람'과 현대미술의 동향을 진단하는 '리듬공방'이 열리고 있다. (문의: ☎031-481-7042)

남양주시에 위치한 실학박물관에서는 추석 특별행사로 실학 한마당을 운영한다. 이 행사에서는 핀버튼 만들기, 제기 만들기, 목판인쇄 등 체험을 비롯해 윷놀이, 투호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민속놀이를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문의: ☎031-579-6000)

소개한 박물관과 미술관은 모두 추석 당일인 27일에는 휴관한다.

# 귀성 26일 귀경 27일 가장 혼잡... 구간별 교통정보 확인하세요

## 한가위 민족 대이동... 고향 빠르고 안전하게 가려면

올해도 어김없이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대체 휴일이 있지만, 연휴에 주말이 이틀이나 끼여 있어 생각보다 여유롭지 못하다. 올 추석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날이 26일 오전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가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고향으로 떠나기 전,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미리 각종 교통정보를 챙겨 본다면 보다 즐겁고 편안한 한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고 없는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안전운전 수칙과 교통법규도 반드시 지킴으로써 하자.

<편집자 주>

정부는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5일간을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 #귀성·귀경 소요시간 및 이동수단 예상

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날인 26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7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짧은 휴일로 인해 귀성·귀경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7시간 30분, 서울~광주 7시간, 부산~서울 7시간 10분, 광주~서울 6시간 20분 등 지난 해보다 귀성은 2시간 이상 지체하고, 귀경은 1시간 이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석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25~29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천199만 명, 1일 평균 640만 명이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46만 대로 예측되며, 10명 당 8명 꼴로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6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며, 대체 공휴일인 오는 29일에도 신탄진까지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제가 실시된다.

이반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 예상이동인원은 총 3천199만 명으로, 추석 당일(27일)에 최대 759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이동인원은 지난 해 추석(2천941만 명) 대비 8.8%(258만 명) 증가, 1일 평균 이동인원은 640만 명으로 지난해(588만 명/일) 대비 8.8%(52만 명) 증가, 평시(358만 명/일)보다는 78.6%(282만 명)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0%로 가장 많고, 버스 12.2%, 철도 3.6%,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6%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 30.5%, 서해안선 13.0%, 영동선 9.6%, 호남선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추석 연휴 각종 특별교통대책

정부는 추석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고속버스 1천821회, 철도 51회, 항공기 35편, 여객선 306회 등을 증회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강한다.

이와 함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오늘부터 5일간 추석 특별 교통대책기간 전국적 예상 이동인원 총 3199만 명 수준 서울~광주 7시간·부산~서울 7시간 10분

승용차 이용 83% 버스 12% 철도 3.6% 순 우회도로·갓길차로 확대 등 교통량 분산 수도권 전철 27~28일 새벽 2시까지 운행

상승 지·정체 구간의 우회도로 지정 등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 페이지, 민간 포털 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 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가 제공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 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이 제공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등이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예보팀을 운영해 고속도로 주요구간의 소요시간 예측 등 교통예보를 교통방송, 고속도로 대표전화(☎1588-2504) 등을 통해 제공한다.

특히, 주요 7대 도시 간 실시간 예측소요시간과 함께 실시간 기반의 335개 영업소간 최적경로 및 소요시간, 일자별 시간대별 정체 예상정보를 제공하는 고속도로 전 구간 교통예보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고속도로 정체 때에는 우회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 제공으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며, 지·정체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53개 구간(864km)과 국도 16개 구간(211.6km)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도로전광판과 안내표지판을 통해 우회 정보를 제공, 교통량을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평시 운영 중인 갓길차로(32개 구간, 223km) 외에 추가로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 차로제(14개 구간 43.5km)와 고속도로 나들목(10) 진출구간 혼잡에 따른 분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임시 감속차

로(5개 노선 10곳)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운행속도에 따라 4개 노선 23개 영업소의 진입부스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차량의 과도한 진입으로 인한 고속도로 분선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 등 8곳에는 분선 교통상황에 따라 진입램프 신호등 조작을 통해 진입교통량을 조절하는 램프미터링이 시행된다.

고속도로 평택~제천선(충주~제천 41.9km) 신설과 경부선(양재~판교 7.5km, 영동 옥전 7.1km), 서해안선(안산~목감 6.1km), 남해선(병정~부산 53.3km)이 확장·개통되고, 국도 30개구간(229km)이 준공 개통되며, 국도 15개 구간(73.7km)도 임시 개통된다.

아울러 정부는 귀성·귀경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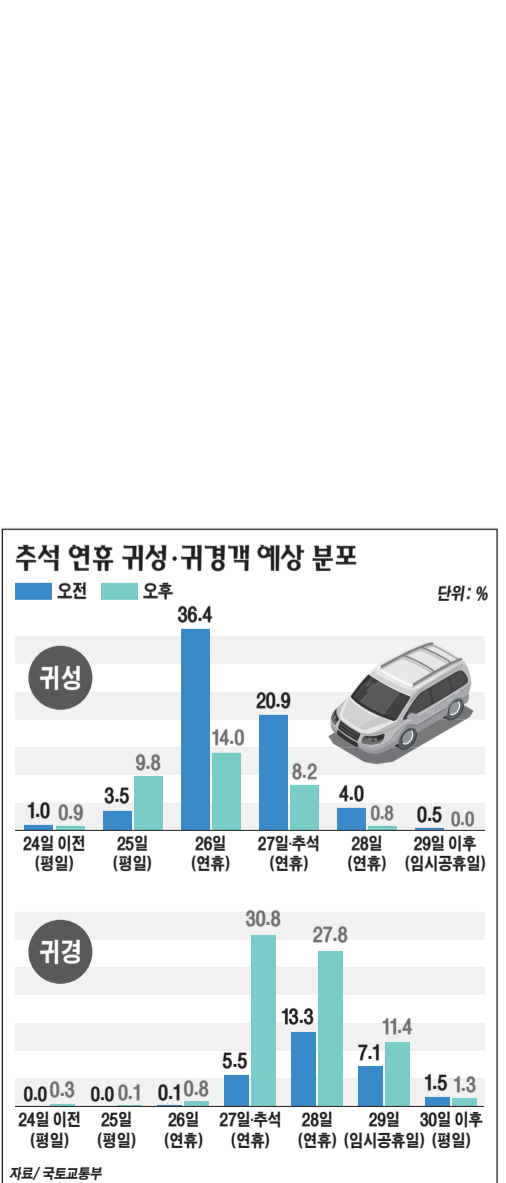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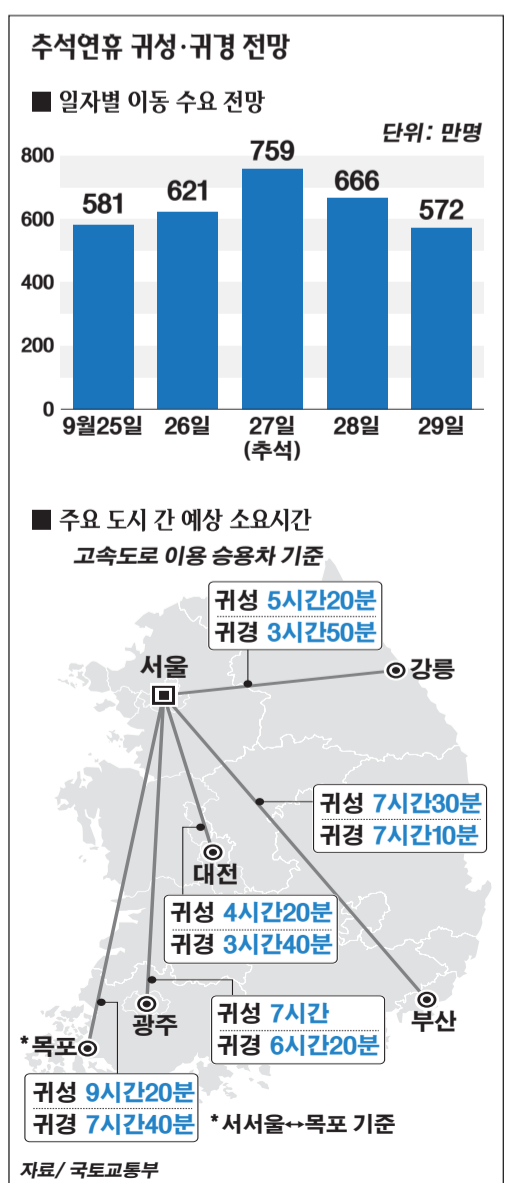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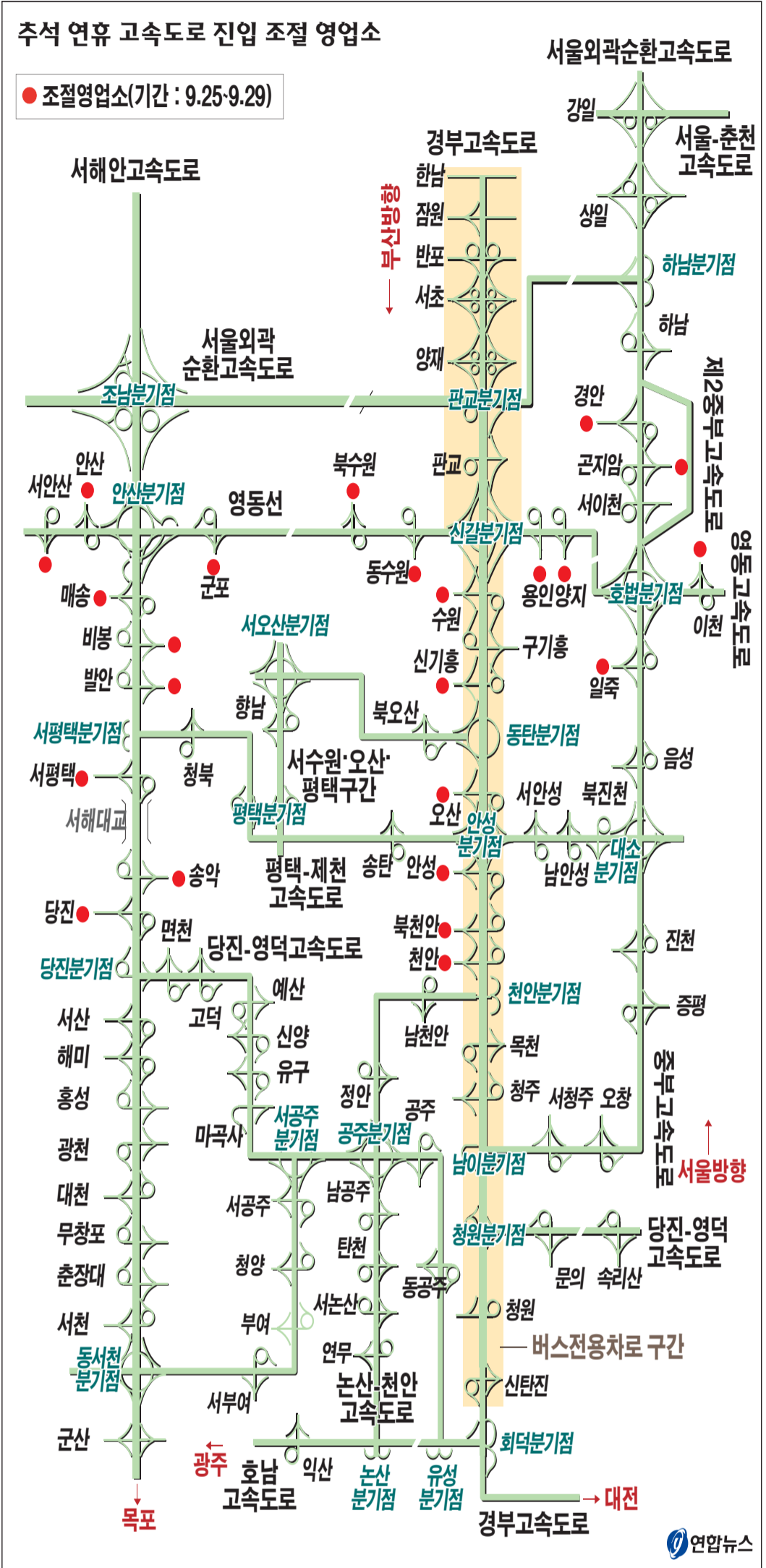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체구간 등에 임시화장실 1천137칸을 설치하고, 여성 화장실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휴게소 22곳 61개 코너)도 제공된다.

이어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는 다음날 도착지 기준 새벽 2시까지 연장·운영할 계획이다.

광역철도(9개 노선)도 27일부터 28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하며, 성묘객의 편의를 위해서도 망우리, 용미리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4개선에 대한 운행횟수를 증회·운영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터널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전좌석 안전띠 매기 및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4대) 및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06곳)와 연락체계 구축, 구난견인차량 2천149대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6대를 운행해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할 계획이다. 또 기상악화 사고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항공사와 해상공항별로 단계별 재난대책본부를 편성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최윤희 기자 cyt@khiho.co.kr









# 나눔 기쁨으로 '사회적 낙인' 치유한 아이들

서울소년원 학생들 장수사진 봉사  
2013년 고봉문화예술봉사단 발족  
제9회 법조협회 우수단체에 선정

“어르신 표정이 너무 굳었어. 부드럽게 미소를 띄우세요.”  
카메라를 쥔 모습이 여느 사진작가 못지않다. 장수사진 촬영을 위해 자리에 앉은 노인들에게 너스레를 떨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이끄는 게 프로답다.  
고봉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사진영상반 학생들이 지난 23일 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찾았다.  
고봉중·고교는 일반인에게 서울소년원으로 더욱 알려진 학교다. 이날 학생들은 동자희망나눔센터에서 활동하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했다.  
장수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조만간 노인들 각자 집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장수사진 촬영은 지난 7월 28일 서울역쪽방상담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고봉중·고교의 사회봉사활동을 소식을 접한 서울역쪽방상담소 측은 노인 장수사진 촬영을 제의했고, 학생들이 흔쾌히 받아들여 성사됐다.  
사실 고봉중·고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어제도 늘어난 일이다.  
그동안 미술, 노래, 합창, 장수사진 촬영



서울소년원 사진영상반 회원들이 지역 노인들을 위해 장수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소년원 제공>

등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지역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낙인이 찍힌 학생들이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나아가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날 장수사진 촬영에 나선 배한신(가명·18)군은 “처음 소년원에 입원했을 때는 빨리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랐는데, 이렇게 사진촬영 기쁨을 배워서 어르신들의 모습을 영글

답아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사진을 가르쳐주신 사진영상반 선생님과 작가님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한영선 교장은 “학생들이 가진 재능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함으로써 참된 봉사활동의 의미 이해와 자긍심 고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재능기부 봉사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봉중·고교는 학생들의 사회적 역할을 개선시켜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덧붙였

다.  
한편 서울소년원은 지난 2013년 초 재능과 끼가 있는 20여 명의 학생들이 ‘고봉문화예술봉사단’을 발족해 교과과정에서 연마한 합창, 미술, 장수사진 촬영 등의 특기를 활용해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0여 회의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같은 활동으로 고봉문화예술봉사단은 지난 6월 제9회 법조협회 주관 사회봉사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의왕=이정현 기자 kgprs@kohoilbo.co.kr

## 수원남부서, 허위신고 ‘철퇴’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 승소

경찰이 악성 허위신고로 경찰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들과의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112 허위신고자 A(34)씨와 B(25)씨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라 A씨와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81만 원, 207만 원의 손실금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수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해 “살인 지명수배자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다. 살인 수배자가 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입건돼 처벌을 받았다.  
B씨 역시 지난 3월 14일 스스로 자해한 뒤 “금품을 빼앗겼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량과 강력팀 형사 등 20~3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실금 청구와 관련해 “현장 출동 시 경찰차량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악성 허위신고는 경찰관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차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치안공백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hyun@kohoilbo.co.kr

**오늘의 날씨**  
9월 25일(금)

해동 06:22 | 달동 16:27  
해질 18:26 | 달질 02:39

**배달날씨 (오전)**

지역	오전	오후
서울	20	10
인천	20	10
경기	20	10
충청	20	10
전라	20	10
경남	20	10
제주	20	10

**강수량 (%)**

지역	오전	오후
서울	20	10
인천	20	10
경기	20	10
충청	20	10
전라	20	10
경남	20	10
제주	20	10

제공 Kweather www.630.co.kr

### “살려줘” 화장실 문 고장난 탓 16시간 갇혀있던 홀몸노인 구조

16시간동안 문이 고장난 화장실에 갇혀있던 70대 홀몸노인이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극적으로 구조됐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 30분께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아파트 입주주민으로부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침부터 계속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호매실파출소 소속 권영관 경위와 신민준 순경은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아파트를 수색하던 이

들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오모(79·여)씨의 집 앞에 도착했고, 희미하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확인했다. 곧바로 119구급대와 합동으로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오후 11시 50분께 고장난 채 문이 잠겨있던 화장실에 갇혀있는 오 씨를 구조했다. 조사결과,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살던 오 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화장실에 갔다가 고장난 문이 열리지 않아 갇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ohoilbo.co.kr

## 추석 집 잃은 치매환자·아동 급증 경기경찰 ‘실종 경보 시스템’ 발령

가족 불화·이동 중 이탈 등 원인  
전광판에 정보 송출 등 수색 강화

경찰이 해마다 추석기간에 되풀이 되는 실종아동과 가출인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기간 중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가출인구와 치매환자가 각각 46.1명과 5.4명 발생했다. 하지만 추석연휴 기간에 가출인이 54.6명으로 8.5명이 증가했

고, 치매환자도 7.4명으로 2명이 늘어났다.  
이는 명절에 가족간 불화로 인해 일시적인 가출이 증가하고,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이던 치매노인이 명절에 잠시 귀가했다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가출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긴급한 경우 실종경보 시스템을 발령하고 조기 수색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종경보는 실종자전 발생 시 이를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 보호자의 동

의가 있으면 택시업체, 기업, 관공서 등의 협조를 받아 전광판에 실종아동 등의 정보가 송출토록 한다.  
이와 동시에 경기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경기경찰 소통마당 밴드’에도 게시해 협력단체에 가입한 일반인들에게 신속히 전달, 실종아동이나 가출인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도내 41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은 연휴기간 중에도 실종아동, 가출인 발생 시 즉각적인 수색과 수사를 진행하고 긴급할 경우 112타격대와 대기 중인 기동대 경력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언규 기자 sims@kohoilbo.co.kr

http://council.ddc21.net

# 따뜻한 情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제25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개회

일시 : 2015. 10. 7.(수) ~ 10. 15.(목)  
내용 : 조례안 검토 및 의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동두천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여는 동두천시의회!  
10만 동두천시민의 행복을 약속합니다!

동두천시의회  
Dongducheon City Council

(483-708)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 TEL. (031)860-2532 / FAX. (031)860-2661

용진 자월면 키조개 채취업자 어촌계 명의 세금계산서 남발

# 추석 앞둔 섬마을에 억울한 '세금폭탄'

있지도 않은 수입 수천만 원씩 발생... 국세청, 소득세 신고 통보 대부분 노년층... 황당한 소득 때문에 저소득 자월면까지 끌려 소득 51대 49 배분 어장임대계약 하나하나... 외자업자 배만 불러

용진군 자월면 이작·소이작·승봉 섬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한 한가위를 맞게 됐다.

24일 이들 어촌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각 어촌계별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있지도 않은 소득이 발생했다며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던 저소득층 생계비나 근로장려금도 끌려 처지에 놓였다.

키조개 양식면허를 갖고 있는 어촌계와 외지 채취업자 간 허위 어장임대차(행사)계약과 전전대, 가짜 거래내역 등 각종 탈·불법이

동원된 탓이다.

그동안 용진군이 지원하는 수산자원조사사업조사 현지 어민들의 소득증대는커녕 외지 업자의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이들 이작·소이작·승봉 등 3개 어촌계는 2013년 10월 25일 한날 각 30ha규모의 어장을 10년 동안 운용할 수 있는 키조개 양식업 면허를 군으로부터 얻었다.

이 어촌계들은 키조개 양식업 면허 취득 전제인 적지조사나 행정 절차 등을 준비했던 외지 채취업자 최모(59)씨와 키조개 채취를 위한 어장 임대차 계약을 2012년 5월에 맺었다.

어촌계 계약금과 임대료 명목으로 1억4천만 원을 2014년까지 3년

에 걸쳐 나눠 내고, 채취한 키조개를 팔아 어촌계와 업자가 51대 49로 분배하는 조건이었다. 아직 어업권도 없는 어장에 특정 채취업자를 끌어들이 키조개를 캐도록 했던 셈이다.

탈·불법은 해가 갈수록 더 했다. 행사계약 당사자인 최 씨는 사라지고 또 다른 채취업자인 김모(59)씨가 나타나 키조개를 팔았다. 김 씨는 제3의 채취업자 박모(50)씨를 내세워 키조개를 채취하도록 하면서 소득의 절반을 서로 나눠 갖기로 했다.

수산업법은 행사계약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어촌계나 계원, 현지 주민 등으로 한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잡수기(일명 머구리)면허를 갖고 있는 외지 수산업인과의 행사 계약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전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지 업자들은 계약금과

임대료로 1억4천만 원만 내고 어촌계와의 소득분배(51대 49)약속을 3년 동안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 배만 불린 셈이다.

게다가 업자들은 어촌계를 꼬드겨 군 지원의 수산자원조사사업을 이끌어 냈다. 군은 지난해 4월 3개 어촌계 어장에 각 5천만 원어치의 어린 키조개(11~15cm)를 이식했다. 수산자원조사사업별인 어장에서는 금어기(7~8월)에도 조업을 할 수도도록 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외지 업자 김 씨는 채취한 키조개를 팔아 이문을 남기면서도 어촌계와 약정대로 소득을 분배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이작어촌계원(78명) 당 2천40만 원 일인 16억 원 어치의 키조개를 도매상과 음식점 등에 팔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어촌계 이름을 빌려 세무서에 신고 했다. 같은 이유로 소이작(계원 71명)과 승봉(계원 42명) 어촌계 소

도도 각 16억 원씩 발생했다.

이 바람에 어촌계원들은 불이익 받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대로 소득을 인정해 과세라도 할 경우 내년부터 연간 소득이 1천300만 원 이하인 근로장려금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간이사업자(연 매출액 4천800만 원 이하)이던 어촌계원 일반사업자로 전환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작어촌계원들은 강모(66) 전 어촌계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이들은 또 "업자들의 비위로 실제 생기지 않았던 소득이 어촌계원들에게 발생했다"고 소명하면서 인천세무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지권대 기자 jus216@kh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즐거운 달리기 인천 한빛초등학교에서 24일 가을운동회가 열려 학생들이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만규 기자 cmg@khihoilbo.co.kr

##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막는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10% 할인 판매 중인 온누리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으로 불법유통<본보 9월 21일, 22일, 23일자 19면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소기업청은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에 관습하는 가맹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2천만 원)하고, 1년 동안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하반기 온라인 매집업체 및 '관련기관 의심 신고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이나 관계기관의 '자금 세탁' 등에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중기청이 최근 현장 모

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상인들이 할인을 악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구매·유통하는 정황이 포착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맹점 환전 한도(월 1천만원) 및 판매점 할인판매 한도(월 1억 원)를 제한하고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이용, 가맹상인이 할인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인회의 환전 대행 한도 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장대응반' 운영, 상품권 통합 관리시스템 개선, 상인회 차원의 자정노력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창호 기자 ych23@khihoilbo.co.kr

## 인천지하철 일관성 없는 일부 표지판에 시민들 혼란

# 공립학교 대신 사설학원이 딱

'1번 출구 00학원' 인천지하철 1호선 일부 역의 출구 안내표지판에는 이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신 사설 학원이나 개인 사업체를 유독 많이 명시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 지도 앱 등 이용자가 늘고 있던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처음 방문한 지하철역의 출구를 찾을 때 역 안에 마련된 출구정보 안내판을 이용한다. 이때문에 상당수 시민들이 지하철 역사를 빠져 나갈 때 혼란을 겪고 있다.

예술회관역 5번 출구에는 일 반 음식점이, 동춘역 4번 출구와 인천시청역 1번 출구에는 근처 학교 대신 사립 교육학원이거나 일반 의료기기 업체가 안내판에 표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안내판만 정보가 수정된 동춘역과 달리, 인천시

정역의 경우 모든 안내판의 1번 출구 정보가 공립학교인 인천 예고 대신 해당 교육학원으로 바뀐 상태다.

24일 오후 1시계 인천시청역을 찾은 신재연(25·여)씨는 "공공시설인 지하철에서 왜 사설 학원을 안내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예고를 방문할 때 역과 가깝다니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처음 온다면 헷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 표지판의 경우 입찰을 통해 선정된 대행업체가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표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공공기관인 인천예고는 그동안 대행업체에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표기가 됐는데, 대행업체 직원



인천시청역 출구정보 표지판의 1번 출구 칸에 인천예고가 아닌 사설 교육학원이 명시되었다. 글·사진=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 명절 연휴 틈타 농·축산물 절도 인천지역 발생건수 해마다 증가

2012년 5건 → 2014년 21건  
도난사건 상대적으로 적지만  
검거율 낮아 예방·단속 중요

강화군 등 인천지역 농어촌 마을에서 명절 연휴와 농번기에 농·축산물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 경찰청이 국회 황인자(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간 농축산물 절도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농축산물 절도범죄는 2012년 5건, 2013년 12건, 2014년 21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보다 농사 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절도 발생 건수 자체는 적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도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이미 12건의 절도 사건이 발생한 상태다.

해당 범죄 검거율도 낮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7%였다.

전국 평균 검거율은 51.7%였으며 이보다 낮은 지역은 전국에서 인천을 비롯해 서울, 대전, 강원, 경남 등 5곳이다.

황인자 의원은 "추석을 포함해 가을 수확 철에는 농민들이 집을 비우거나 분주하기 때문에 이를 틈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사후 검거보다는 농산물 창고, 농·축산물 이동로, 집하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및 단속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연 기자 khy@khihoilbo.co.kr

수원 2015  
30년 만의 대서

제 52회 수원화성문화제  
The 52nd Suwon Hwaseong Cultural Festival

수원시  
SUWON CITY

수원문화재단  
Suwon Cultural Foundation

나의 가을이  
여길리다

**2015년 10월 8일(목) ~ 10월 11일(일) | 화성행궁, 수원천, 연무대, 수원화성 일원**

<p>개막연 : 10.8(목) 19:30 폐막연 : 10.11(일) 19: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무대</li> <li>• 가(歌), 무(舞), 악(樂), 회(戲) 등을 소재로 멋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제52회 수원화성문화제의 성대한 시작을 알릴</li> </ul>	<p>정조대왕 능행차 10.9(금) 14: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원종합운동장 - 장안문 - 화성행궁광장 - 팔달문 - 중동 사거리 - 지동초교</li> <li>• 조선22대 정조대왕의 효심과 꿈이 담긴 을묘년(1795년) 화성원행을 재현한 대규모 행렬이 도심을 통과하는 장관을 연출</li> </ul>	<p>무예공연 - 무무화평(武舞和平) 10.10(토) 20:30 / 10.11(일) 19: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무대</li> <li>• 달빛에 어우러진 무사들의 몸짓, 역동적인 빛과 소리의 연출이 어우러진 대형 야외무예극</li> </ul>
<p>국제자매도시의 밤 10.9(금)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행궁 광장</li> <li>• 한국, 독일, 러시아,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6개국 예술단의 다채로운 전통공연</li> </ul>		

문의 | 축제기획단 031-290-3596 (http://shcf.kr)



제14회

한·중수교 23주년

# 인천-중국의 날 문화 축제

第14回 仁川-中国节 庆典活动  
The 14th Incheon-China Festival

2015. 10.03 (토) 자유공원

**한·중 문화예술 합동 공연**

한국 · 전통 풍물공연 -  
중국 · 사자춤, 전통악기, 전통춤 -

**인기가수 특별공연 (경인방송 FM 90.7MHz)**

박완규, 소찬휘, 자전거탄풍경, 정단, 풋풋 등 -

**축하 파노라마 공연**

인디버스킹 릴레이 파노라마 콘서트, 7090 퓨전콘서트 -

**부대행사**

중국문화 체험 -  
포토존, 중국 전통의상 체험 -  
중국 전통차 체험, 아트프리마켓 -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및 참여형 가족레크리에이션 -  
한중 바로알기 OX퀴즈 -



주최 인천광역시

주관 기호일보 (사)문화예술발전협의회

문의 기호일보 사업국 ☎032)761-0007

후원 신한은행

POSCO  
포스코건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대학교 공자아카데미  
仁川大學校孔子學院

Kyungshin  
주식회사 경신